時事
邊塞
將帥
軍旅

杜諺 卷之四五

分類杜工部詩卷之四

時事上 古詩三十一首

兵車行

車轔轔馬蕭蕭行人弓箭各在腰 轔轔은 車聲이오 蕭蕭ᄂᆞᆫ 不諠譁ㅣ오 行人은 征後之人이라 ○ 술위 轔轔ᄒᆞ며 ᄆᆞ리 蕭蕭ᄒᆞᄂᆞ니 녀ᄂᆞᆫ 사ᄅᆞᄆᆡ 화사리 제여곰 허리예 잇도다 爺孃妻子走相送塵埃不見咸陽橋 咸陽橋ᄂᆞᆫ 在長安城外ᄒᆞ니 車行塵起故로 不見橋也ㅣ라 ○ 아비와 어미와 妻子 ᄃᆞᆯ히 ᄃᆞ라가 서르 보내ᄂᆞ니 드트리 니러나니 咸陽ㅅ ᄃᆞ리ᄅᆞᆯ 보디 몯ᄒᆞ

다리로 牽衣頓足攔道哭哭聲直上干雲霄 頓足은 是踊於地也ㅣ오 攔은 遮攔也ㅣ라 ○옷 브티들며 발구르고 길헤 ᄀᆞᄅᆞ셔셔 우ᄂᆞ니 우ᄂᆞᆫ 소리 바ᄅᆞ 올아 구룸 ᄭᅵᆫ 하ᄂᆞᆯ해 干犯ᄒᆞ놋다

道旁過者問行人 行人但云點行頻 點行은 以丁籍으로 照點ᄒᆞ야 為差後也ㅣ라 ○긼ᄀᆞᅀᆞ로 디나가리 行人ᄃᆞ려 무러든 行人이 오직 點考ᄒᆞ야 뎨요ᄆᆞᆯ ᄌᆞ조 ᄒᆞᄂᆞ니라 ᄒᆞᄂᆞ다

或從十五北防河便至四十西營田 防河營田은 皆當時差後也ㅣ라 ○시혹 열다ᄉᆞᆺ브터 北녀그로 ᄀᆞᄅᆞ매 가 防禦ᄒᆞ고 곧 마ᅀᆞ내 니르러 西ㅅ녀그로 가 녀름 짓놋다

去時里正與裹頭歸

來頭白還戍邊 與裹頭ᄂᆞᆫ 發去時예 里中正長이 與之裹帽也ㅣ라 此ᄂᆞᆫ 言自少至老히 役使無已也ㅣ라○갈 時節예 里正이 머리 ᄡᆞ거슬 주더니 도라오니 머리셰요ᄃᆡ 도로 邊方애 屯戍ᄒᆞᄂᆞ다 邊庭流血成海水武皇開邊意未已 成海水ᄂᆞᆫ 言戰爭애 伏屍流血이 若海水也ㅣ라 武皇은 借漢武爲喻ᄒᆞ니라○邊庭에 흐르ᄂᆞᆫ 피 바ᄅᆞᆳ 믈 ᄀᆞ티 ᄃᆞ외요ᄃᆡ 武皇의 ᄀᆞᆺ 여ᄂᆞᆫ ᄠᅳ든 마디 아니ᄒᆞ시ᄂᆞ다 君不聞漢家山東二百州千村萬落生荊杞 落은 居也ㅣ라 生荊杞ᄂᆞᆫ 言人物이 空虛ᄒᆞ야 唯生荊杞也ㅣ라○그ᄃᆡᄂᆞᆫ 듣디 아니ᄒᆞᄂᆞᆫ다 漢家ㅅ 山東 二百ᄀᆞ올해 千村萬落애 가싀 남기 낫도다 縱有健

婦把鋤犁禾生隴畝無東西 此ᄂᆞᆫ言婦人이耕種ᄒᆞ니隴畝ㅣ不整也ㅣ라○비록잇ᄂᆞᆫ健壯ᄒᆞᆫ겨지비호미와사보ᄅᆞᆯ자바나禾穀이나니밧이러미東西ㅣ업게가랫도다 況復秦兵耐苦戰被驅不異犬與鷄 此ᄂᆞᆫ言秦人이性本勇銳耐戰이로ᄃᆡ亦如鷄犬之被驅ᄒᆞ니言其困苦也ㅣ라○ᄒᆞ믈며ᄯᅩ秦ㅅ兵士ᄂᆞᆫ受苦ᄅᆞ외사호몰ᄎᆞ모ᄃᆡ믈여ᄃᆞᆫᄂᆞ미가히와ᄃᆞᆰ매다ᄅᆞ디아니ᄒᆞ도다 長者雖有問役夫敢伸恨 言上官이雖有勞問이나供役之夫ㅣ不敢伸訴寃恨也ㅣ라○위두ᄒᆞ니비록무로미이시나役夫ᄂᆞᆫ敢히셜운ᄠᅳ들펴니ᄅᆞ리아 且如今年冬未休關西卒縣官

急索租租稅何從出 索은 取也ㅣ라○佐篇一에 옮겨 으레 關西ㅅ 軍卒을 마디 아니ᄒᆞ면 縣官이 ᄲᆞᆯ리 租稅信롤 바ᄃᆞ리니 租稅ᄂᆞᆫ 어듸롤브터 날고

知生男惡反是生女好生女猶得嫁比隣生男埋沒隨百草 진실로 아ᄃᆞᆯ 나호ᄆᆞᆫ 사오납고 도로혀 ᄯᆞᆯ 나호미 됴호ᄆᆞᆯ 아노라 ᄯᆞᆯ 나하 오히려 시러곰 이우제 얼여 이시려니와 아ᄃᆞᆯ 나하ᄆᆞ뎌 온 가짓 프를 조ᄎᆞᆺ다

君不見青海頭古來白骨無人收新鬼煩冤舊鬼哭天陰雨濕聲啾啾 青海ᄂᆞᆫ 吐蕃의 入寇之處ㅣ니 言戰鬪ㅣ 相因ᄒᆞ야 暴骨原野也ㅣ라 ○그듸ᄂᆞᆫ 보디 아니ᄒᆞᄂᆞᆫ다 青海ㅅ 우희

로오ᄂᆞᆫ 흰 새ᄅᆞᆯ 사ᄅᆞ미 收葬ᄒᆞ리 업스니 사귓거슨 어즈러이 애와텨ᄒᆞ고 녯 귓거슨 우ᄂᆞ니 하ᄂᆞᆯ히 어듭고 비와 저즌 제 기어든 소리 숫두워리ᄂᆞᆺ다

悲陳陶

孟冬十郡良家子 血作陳陶澤中水 良家子ᄂᆞᆫ 指軍卒ᄒᆞ다 陳陶ᄂᆞᆫ 在咸陽縣ᄒᆞ니 房琯이 與祿山ᄋᆞ로 戰敗處ㅣ라 ○ 孟冬애 열 ᄀᆞ올 良家子의 피 陳陶ㅅ 못 가온ᄃᆡᆺ 므리 ᄃᆞ외니라 野曠天清無戰聲 四萬義軍同日死 드르히 훤ᄒᆞ고 하ᄂᆞᆯ히 ᄆᆞᆰ고 사홈 소리 업스니 四萬 義軍이 ᄒᆞᆫ 날 주그니라 群胡歸來血洗箭 仍唱胡歌飲都市

都人回面向北啼日夜更望官軍至 時예安西回紇等이助討祿山ᄒᆞ니然夷狄之性이淺擾故로都人이更望靈武王師之來也ㅣ라○뭀되도라와자랏피를싯고仍ᄒᆞ야되놀애브르고都市예이셔술먹ᄂᆞ니都邑ㅅ사ᄅᆞᄆᆞᆫᄂᆞᆺ촐도ᄅᆞ혀北을向ᄒᆞ야우리밤나지官軍의오몯다시ᄇᆞ라ᄂᆞ다

悲青坂

我軍青坂在東門天寒飲馬太白窟 青坂太白은皆在岐州ᄒᆞ니라○우리青坂애軍障ᄒᆞ야東門에이시니하ᄂᆞᆯ히ᄎᆞ거늘太白山ㅅ굼긔ᄆᆞᄅᆞᆯ믈머기니라

黃頭奚兒日向西數騎彎弓敢馳

突黃頭ᄂᆞᆫ黃狐皮로蒙其頭ㅣ라奚兒ᄂᆞᆫ祿山의所領奚契丹等이라○머리누른奚兒ㅣ날마다西ᄅᆞᆯ向ᄒᆞ야두어곰몰타활혀구티여ᄃᆞᆫ이ᄂᆞ다 山雪河氷野蕭颼靑是烽烟白人骨 뫼눈과ᄀᆞᄅᆞᆷ어르메드르히서늘ᄒᆞ니프르ᄂᆞᆫ이烽火ㅅ니오ᄒᆡ닌사ᄅᆞᄆᆡᄲᅨ로다 焉得附書與我軍忍待明年莫倉卒 此ᄂᆞᆫ言房琯이懲戒陳陶之敗ᄒᆞ야不欲輕戰ᄒᆞ다가逼於中官邢延恩의促戰ᄒᆞ야再敗於此故로有莫倉卒之戒ᄒᆞ니라○엇뎨시러곰글월브터우리軍을주어ᄎᆞ마來年을기들워샐리말라ᄒᆞ려뇨

新安吏 甫ㅣ自註收京後作이니雖收兩京ᄒᆞ나賊猶充斥이니라

客行新安道喧呼聞點兵 客은甫自謂라○내新安ㅅ길헤녀니들에여블로믈兵士點考호믈드로라 借問新安吏縣小更無丁府帖昨夜下次選中男行 年十六以上이為丁ᄒᆡ니中男은次丁者也ㅣ라○新安ㅅ吏더브러무로니ᄀᆞ올히젹고ᄯᅩ壯丁이업스니府ㅅ글워리어젯바믜오니버거中男ᄋᆞᆯᄀᆞᆯᄒᆡ야ᄂᆡ라ᄒᆞᆫ다 中男絕短小何以守王城 中男은ᄀᆞ장킈져르고져그니엇뎨ᄡᅥ곰王城을가守禦ᄒᆞ리오 肥男有母送瘦男獨伶俜 男之肥者ᄂᆞᆫ母送饋食이니라伶俜은單孤貌ㅣ라○ᄉᆞᆯ진아ᄃᆞᄅᆞᆫ어미이셔보내리어니와어윈아ᄃᆞᄅᆞᆫ올로외ᄅᆞ왓도다

白水暮東流青山猶哭聲 東流ᄂᆞᆫ以水之流去로比征夫의無回期ᄒᆞ니라○ᄒᆡᆫ므리나조ᄒᆡ東녀그로흘러가ᄂᆞ니프른뫼해오히려우ᄂᆞᆫ소리로다

莫自使眼枯收汝淚縱橫 네누ᄂᆞ로ᄒᆞ여ᄆᆞᄅᆞ게마라네눈믈의ᄒᆡ흘루믈가ᄃᆞ라

眼枯卽見骨天地終無情 見骨은謂淚盡而壞瘠也ㅣ라無情은우ᄒᆞᆺ사ᄅᆞ미어엿비너굠업소믈니ᄅᆞ니라○누니ᄆᆞᄅᆞ면도ᄅᆞ혀ᄲᅧ를보리니하ᄂᆞᆯ과ᄯᅡ과ᄂᆞᆫᄆᆞᄎᆞ매어엿비너길ᄠᅳ디업스리라

我軍收相州日夕望其平豈意賊難料歸軍星散營 時에郭子儀等이圍慶緖於相州ᄒᆞ얏다가師潰ᄒᆞ야各歸其營ᄒᆞ니라○우리軍이相州를

抄取커늘日夕에그平ᄒᆞ요믈ᄇᆞ라다니盜賊의이믈혜아료미어려운거시라도라가ᄂᆞᆫ軍이營에별해여디ᄃᆞᆺᄒᆞ몰어늬니기리오

就糧近故壘練卒依舊京

故壘ᄂᆞᆫ舊欒稼山之壘ㅣ니言子儀退軍ᄒᆞ야取粮於敵호ᄃᆡ但近故壘ᄒᆞ며訓練兵卒ᄒᆞ야保守東京이라○軍粮잇ᄂᆞᆫᄃᆡ나아가녯城壘에갓가이ᄒᆞ며士卒을訓練ᄒᆞ야ᄡᅥ셔우를보텟도다

掘壕不到水牧馬亦役輕

이ᄂᆞᆫ그시졋役事ᄅᆞᆯ니ᄅᆞ니라○城미티모ᄅᆞᆯ파도믈나ᄢᅢ니르디아니ᄒᆞ며ᄆᆞᆯ머기ᄂᆞᆫ役事ᄂᆞᆫ佐가ᄇᆡ야오니라

況乃王師順撫養甚分明送行勿泣血僕射如父兄

此ᄂᆞᆫ言僕射子儀ㅣ撫養士卒이如父兄의愛子弟

ᄒᆞᄂᆞ니 不必悲傷送行也ㅣ라○ᄒᆞᄆᆞᆯ며 王師ㅣ 順ᄒᆞ야 撫養호미 甚히 分明ᄒᆞ니 行人 보내요매 피흐르ᄃᆞᆺ 우디 말라 僕射ㅣ 父兄ᄀᆞᄐᆞ시니라

潼關吏

士卒何草草築城潼關途 草草ᄂᆞᆫ 勞苦貌ㅣ라○士卒이 ᄌᆞ모 잇브니 潼關ㅅ 길헤 城을 ᄡᅡᆺ다

大城鐵不如小城萬丈餘 큰 城은 구두미 쇠도곤 디몯ᄒᆞ고 져근 城은 기리 一萬丈이 남도다

借問潼關吏修關還備胡 潼關ㅅ 吏ᄃᆞ려 ᄇᆞ려 무로니 關을 修補ᄒᆞ야 도로 되ᄅᆞᆯ 마고리라 ᄒᆞᄂᆞ다

要我下馬行爲我指山隅 나ᄅᆞᆯ 마자 ᄆᆞᆯ브려 녀

고나ᄅᆞᆯ為ᄒᆞ야뫼모ᄒᆞᆯᄀᆞᄅᆞ치ᄂᆞ다 連雲列戰格飛鳥不能踰 戰格ᄋᆞᆫ即木柵也ㅣ라○구루믈니어戰格을버리니ᄂᆞᆫ새도能히넘디몯ᄒᆞ리로다 胡來但自守豈復憂西都 西都ᄂᆞᆫ長安이라○되올저긔오직스싀로防守ᄒᆞ야시면엇뎨ᄯᅩ西都ᄅᆞᆯ시름ᄒᆞ리오 文人視要處窄狹容單車 文人ᄋᆞᆫ吏ㅣ杜甫ᄅᆞᆯ니ᄅᆞ시라○文人ᄋᆞᆫ조ᄋᆞᄅᆞ왼ᄃᆡᄅᆞᆯ보라조바ᄒᆞᆫ술위ᄃᆞ러올만ᄒᆞ니라 艱難奮長戟千古用一夫 此ᄂᆞᆫ言要處ㅣ窄狹ᄒᆞ야一人이持戟而守ㅣ면萬夫ㅣ莫當也ㅣ라○어려운저긔긴戈戟을니르와다시면千古애ᄒᆞᆫ사ᄅᆞ몰ᄡᅳᄂᆞ니라 哀哉桃林戰百萬化為魚

請囑防關將愼勿學哥舒 桃林은近潼關ᄒᆞ니時예哥舒翰軍이爲賊의所破ᄒᆞ야多溺河而死ᄒᆞ니라○슬프다桃林사호매百萬사ᄅᆞ미고기ᄃᆞ외니關을防禦ᄒᆞᄂᆞᆫ將帥더브러請ᄒᆞ야니ᄅᆞ노니삼가이哥舒翰의이ᄅᆞᆯ비호디마ᄅᆞᆯ디ᄅᆞ다어

石壕吏

暮投石壕村有吏夜捉人 나조ᄒᆡ石壕村애가니잇ᄂᆞᆫ吏ㅣ바ᄆᆡ와사ᄅᆞᄆᆞᆯ잡더라 老翁踰墻走老婦出門看 늘근한아비ᄂᆞᆫ다ᄆᆞᆯ너머도거늘늘근겨지비門의나보더라 吏呼一何怒婦啼一

何苦吏의 블로ᄆᆞᆫ ᄒᆞᆫ굴ᄋᆞ티 ᄌᆞ모 怒ᄒᆞ야져 늘거지븨 우루ᄆᆞᆫ ᄒᆞᆫ굴ᄋᆞ티 ᄌᆞ모 苦ᄅᆞ외도다

聽婦前致詞三男鄴城戍一男附書至

二男新戰死此ᄂᆞᆫ 甫ㅣ 聞婦之致詞於吏也ㅣ라 ○ 겨지븨 나아가 말ᄉᆞᆷᄒᆞᄆᆞᆯ 드로니 세 아ᄃᆞ리 鄴城에 가 防戍ᄒᆞ더니 ᄒᆞᆫ 아ᄃᆞ리 브튼 글워리 오니 두 아ᄃᆞ리 새려 사호다가 죽도다

存者且偷生死者長已矣偷生은 아니오라 사화 주글 거시 아직 사라슈미 人生을 일버어 잇ᄂᆞᆫ ᄃᆞᆺᄒᆞᆯ시라 ○ 사랏ᄂᆞ니도 ᄯᅩ 사라쇼ᄆᆞᆯ 일버어 잇고 주그닌 기리 말리로다

室中更無人惟有乳下孫

孫有母未去出入無完裙집안해 ᄯᅩ 사ᄅᆞᆷ미 업고 오직 졋

먹ᄂᆞᆫ孫子옷잇ᄂᆞ니져믄孫子ㅣ이셔어미ᄇᆞ리고가디몯ᄒᆞ리오ᄯᅩ드나ᄃᆞ로매암ᄆᆞᆫᄆᆞ외도업ᄉᆞ니라 老嫗力雖衰請從吏夜歸急應河陽役猶得備晨炊 此ᄂᆞᆫ老婦ㅣ告吏ᄒᆞ야言家無餘丁이오孫毋도亦未可去故로身欲赴河陽役ᄒᆞ야以供炊爨也ㅣ라 ○늘근할미히미비록衰殘ᄒᆞ나請ᄒᆞᆫᄃᆞᆫ吏ᄅᆞᆯ조차바ᄆᆡ가셜리河陽役事ᄅᆞᆯ對答ᄒᆞ면오히려시러곰새뱃밥지ᅀᅳᆯ초ᄒᆞ리라 夜久語聲絶如聞泣幽咽天明登前途獨與老翁別 此ᄂᆞᆫ言老婦ㅣ已從吏去ᄒᆞ거ᄂᆞᆯ甫ㅣ獨與踰牆老翁으로別也ㅣ라 ○바미오라말ᄉᆞᆷ소리그츠니우러그으기여수우워류믈듣ᄂᆞᆫ듯ᄒᆞ더니하ᄂᆞᆯ히ᄇᆞᆯ

거늘 앏길ᄒᆞ로 올아 올제 ᄒᆞ오
아 늘근 한아비와로 여희요라

垂老別 此篇은 甫ㅣ 代別者之意而 作ᄒᆞ니 下篇이 同ᄒᆞ니라

四郊未寧靜垂老不得安 ᄆᆡ 믜히 安靜티 몯ᄒᆞ니 늘구메 다ᄃᆞ
라 시러곰 便安티 몯호라 子孫陣亡盡焉用身獨完 子孫이 軍
陣에 주거 다 업스니 엇뎨 ᄡᅥ 내 모미 ᄒᆞ오아 오오라 이지리오 投杖出門去
同行爲辛酸 막다히 더디고 門으로 나가니 ᄒᆞᆫ디 가논 사ᄅᆞ미 爲ᄒᆞ야 ᄀᆞ홀
싀히 너기ᄂᆞ다 幸有牙齒存所悲骨髓乾 이ᄂᆞᆫ 비록 이셔도
머굴 거시 업슬가 ᄒᆞ야 니ᄅᆞ니라 ○ 幸ᄒᆞᆫ 잇
ᄂᆞᆫ 엄니 잇ᄂᆞ니 슬ᄂᆞᆫ 고ᄃᆞᆫ 骨髓ㅣ ᄆᆞᄅᆞᆯ가 ᄒᆞ

애니라 男兒既介胄長揖別上官 禮예 介胄之士ᄂᆞᆫ 不拜니라○ᄉᆞ나ᄒᆡ ᄒᆞ마 甲닙고 투구 서실시기리 揖ᄒᆞ야 上官을 여희노라 老妻臥路啼歲暮衣裳單 늘근겨지비 길헤 누워서 우ᄂᆞ니 歲暮애 옷ᄋᆞ 외ᄒᆞ오치로다 孰知是死別且復傷其寒此行必不歸還聞勸加餐 言此行은 乃是死別이라 必不還來언마ᄂᆞᆫ 然夫ㅣ 尚憂其妻寒ᄒᆞ며 妻亦慮夫之飢也ㅣ라○뉘 이 주거 여ᄒᆡ유믈 알리오 ᄯᅩ 그 치운고ᄃᆞᆯ 슬노라 이제 가매 반ᄃᆞ기 도라오디 몯ᄒᆞ리언마ᄂᆞᆫ 도ᄅᆞᆺ혀 밥 더 머그라 勸호ᄆᆞᆯ 듣노라 土門壁甚堅杏園度亦難勢異鄴城下縱死時

猶寬 此ᄂᆞᆫ言내가논土門杏園은鄴城ᄉ수ᄌᆞ이敗戰ᄒᆞᄂᆞᆫᄯᅢ과다ᄅᆞᆯ시비록敗ᄒᆞ야도므드주그디아니ᄒᆞ리라○土門엔壁壘ㅣ甚히굳고杏園엔盜賊의건나오미ᄯᅩ어려우니事勢ㅣ鄴城아래와다ᄅᆞᆯ시비록주거도時ㅣ오히려느즈리라

人生有離合豈擇衰盛端憶昔少壯日遲回竟長歎 此ᄂᆞᆫ言人生애必有離有合而不擇老少之時故로今吾ㅣ老而未免離別ᄒᆞ야ᄂᆞ니但追思少年無事之時ᄒᆞ고臨岐遲回不進而憂傷也ㅣ니라○人生애여희여모도미잇ᄂᆞ니엇뎨衰老ᄒᆞ며壯盛ᄒᆞᆫ그들ᄀᆞᆯᄒᆡ리오네져믄날이들ᄉᆞ랑ᄒᆞ고날호야셔ᄆᆞᄎᆞᆷ매기리嗟歎ᄒᆞ노라

萬國盡征戍烽火被岡巒 萬國이다征戍ᄒᆞ여防戍

ᄒᆞ니 烽火ㅣ 뫼부리예 니렛도다 積屍草木腥流血川原丹

주거미 담사ᄒᆞ매 플와 나모왜 비뉘ᄒᆞ고 피 흘로매 내마 두들기 블겟도다 何鄕

爲樂土安敢尙盤桓 言此地ㅣ亦非樂土故로不欲尙留也ㅣ라○

어느 ᄀᆞ올ᄒᆡ 즐거운 ᄯᅡ히리오 엇데 구틔여 오히려 머므러 이시리오 棄絕蓬

室居塌然摧肺肝 塌은 摧頹貌ㅣ라○다보ᄌᆞ로니 윤지븨 사던 ᄃᆡ롤 ᄇᆞ리고 塌然히 肺肝을 것거디노라

無家別 無家ᄂᆞᆫ不成家計也ㅣ라

寂寞天寶後園廬但蒿藜 天寶入괴외ᄒᆞᆫ後에 위안마 집괘 오

직다봇과도 ᄐᆞ라치로다 我里百餘家世亂各東西 우리 ᄆᆞ올
ᄒᆡ온지비남더니 時世ㅣ 어즈러위 제여곰 東西로 가도다 存者無消息
死者為塵泥 사랏ᄂᆞ니도 유무업고 주그니ᄂᆞᆫ 홀기 ᄃᆞ외얏도다 賤子
因陣敗歸來尋舊蹊 賤子ᄂᆞᆫ 別者ㅣ 自謂라 ○賤子ㅣ 戰陣의 敗호믈
因ᄒᆞ야 도라와 녯 집길흘 ᄎᆞ조라 久行見空巷日瘦氣慘悽
오래 ᄃᆞ뷘 굴헝을 보니 나날 여위여 氣運이 슬피 ᄃᆞ외요라 但對狐與狸
豎毛怒我啼 言田里荒蕪ᄒᆞ고 人跡이 罕少ᄒᆞ니 惟見狐狸也ㅣ라 ○오직
여ᄋᆞ와 다ᄆᆞᆺ 솔기 ᄃᆡ리 ᄉᆞᆺ그려 날 보고 怒ᄒᆞ야 우루믈 對호라 四鄰何所有

一二老寡妻 네 이우제 므스거시 잇ᄂᆞ니오 ᄒᆞᆫ 둘 늘근 호올겨지비로다
宿鳥戀本枝安辭且窮棲 此ᄂᆞᆫ 言戍卒이 思鄕土ㅣ 猶鳥ㅣ 戀
故枝也ㅣ니라 ○ 자던 새도 믿가질 ᄉᆞ랑ᄒᆞᄂᆞ니 엇뎨 ᄯᅩ 窮困ᄒᆞᆫ 사던 ᄃᆡᄅᆞᆯ 말리오 方
春獨荷鋤日暮還灌畦縣吏知我至召令習
鼓鞞 보야ᄒᆞ로 보미 ᄒᆞ오아 호미 메오 ᄒᆡ 진 나조히 도라와 바티 믈 주다니 ᄆᆞᅀᆞᆳ 吏
ㅣ 날 왯ᄂᆞᆫ 돌 아라 블러 ᄒᆡ여곰 붑 두드류믈 비호이ᄂᆞ다 雖從本州役內
顧無所攜 비록 本鄕ㅅ 고ᄋᆞᆳ 役事ᄅᆞᆯ 조ᄎᆞ니 나 안ᄒᆞ로 도라 보니 가진 거시 업
소라 近行只一身遠去終轉迷家鄕既盪盡遠

近理亦齊 此ᄂᆞᆫ言近可以隱匿이오遠去則官從迷失不得이언마ᄂᆞᆫ家鄉이

旣敗亡ᄒᆞ니遠近이皆同故로甘從此개之役而不去也ㅣ라○갓가이녀도ᄒᆞᆫ몸ᄲᅮᆫ이오머리가면ᄆᆞᄎᆞ매곧迷失ᄒᆞ리언마ᄂᆞᆫ家鄉이ᄒᆞ마盪盡ᄒᆞ니머나갓가오나理佺ᄒᆞᆫ가지니라

衰痛長病母五年委溝谿生我不得力

終身兩酸嘶 酸은痛也ㅣ라○기리病ᄒᆞᆫ어미다ᄉᆞᆺᄒᆡᄅᆞᆯ뭇고래ᄇᆞ리여ᄉᆞᄆᆞᆯ기리ᄉᆞᆯ노라나ᄅᆞᆯ나코내孝道ᄒᆞᆯ히믈得디몯ᄒᆞ니모미몯ᄃᆞ록둘히슬허우노라

人生無家別何以爲蒸黎 此ᄂᆞᆫ傷不得養母ㅣ라○人生애집업시셔여희요미여엇뎨ᄇᆡ곰자ᄅᆞ미로라ᄒᆞ리오

留花門 至德二載十月에回紇葉護ㅣ請留兵沙苑ᄒᆞ니라

北門天驕子飽肉氣勇決 天驕子ᄂᆞᆫ胡ㅣ自言호ᄃᆡ우리ᄂᆞᆫ하ᄂᆞᆳ驕慢ᄒᆞ아ᄃᆞ리로라ᄒᆞ니라○北門옛天驕子ㅣ고기ᄅᆞᆯ비브르먹고氣運이勇猛ᄒᆞ도다

高秋馬肥健挾矢射漢月 노ᄑᆞᆫᄀᆞ올히ᄆᆞ리ᄉᆞᆯ지고健壯ᄒᆞ거ᄂᆞᆯ사ᄅᆞᆷᄢᅦ셔漢ㅅᄃᆞ래셔소ᄂᆞ다

自古以爲患詩人厭薄伐 詩云薄伐玁狁이라ᄒᆞ다○녜로브터ᄢᅴ곰患을삼ᄂᆞ니詩人이薄伐호ᄆᆞᆯ아쳐러ᄒᆞ니라

修德使其來羈縻固不絶胡爲傾國至

出入暗金闕 聖王이禦夷狄호ᄃᆡ修德使來ᄒᆞ야羈縻不絶호ᄆᆞᆯ如牛馬之

受羈縻也ㅣ라○德을닷가ᄒᆞ여곰제오게
ᄒᆞ야굴에ᄡᅴ여못그치디아니ᄒᆞᆯ만ᄒᆞᆯ디어게
놀므스그라나이라히기우리와ᄃᆞ
나ᄃᆞ로매金闕이어듬게ᄒᆞ노뇨 中原有驅
除隱忍用此物 言中國에有驅逐掃除盜賊
之事故로不得已ᄒᆞ야用此
花門也ㅣ니라○中原에모라더러ᄇᆞ릴
기시이질서ᄎᆞ마이거슬ᄡᅳ시ᄂᆞ니라 公
主歌黃鵠君王指白日 漢이江都王建의女
로爲公主ᄒᆞ야妻烏
孫ᄒᆞ야ᄂᆞᆯ公主ㅣ作歌曰願爲黃鵠ᄒᆞ야歸
故鄕이라ᄒᆞ니肅宗이寧國公主로嫁回紇
故로爲比ᄒᆞ니라此ᄂᆞᆫ言嫁公主和親ᄒᆞ고
指白日爲盟約也ㅣ라○公主ㅣ黃鵠을보고
ᄅᆞ며君王이白日 連雲屯左輔百里見積雪
을ᄀᆞᄅᆞ치시도다

左輔ᄂᆞᆫ卽回紇所留沙苑이라回紇이衣冠이皆白故로云積雪이라○구룸ᄀᆞᆺᄐᆞᆫ左輔애屯住ᄒᆞ얏ᄂᆞ니百里예사햇ᄂᆞᆫ눈을보ᄂᆞᆫᄃᆞᆺ도다

長戟鳥休飛哀笳曉幽咽

鳥休飛ᄂᆞᆫ言鳥ㅣ畏長戟ᄒᆞ야不能飛度ㅣ니言屯兵之多ㅣ라哀笳ᄂᆞᆫ花門所吹ㅣ라○긴戈戟엔새도ᄂᆞ디아니ᄒᆞᄂᆞ니슬픈픐뎌ᄂᆞᆫ새배그으기수으놋다

田家最恐懼麥倒桑枝折

此ᄂᆞᆫ言花門이害麥與桑也ㅣ라○녀ᄅᆞᆷ짓ᄂᆞᆫ지비안직저히ᄒᆞᄂᆞ니보리ᄅᆞᆯᄀᆞᆺ고로지게ᄒᆞ며뽕나모가질것거ᄇᆞ리놋다

沙苑臨淸渭泉香草豐潔

沙苑이ᄆᆞᆯᄀᆞᆫ渭水에지렛ᄂᆞ니므리곳답고프리하고조ᄒᆞ도다

渡河不用船千騎常撇烈

撇烈ᄋᆞᆫ相

㴐이니 謂揚波渡水也ㅣ라 ○ 므를 건나딗 바ᄅᆞᆯ ᄡᅳ리라 아니ᄒᆞᄂᆞ니 千騎ㅣ 미양 므를 헤딗 ᄎᆞᄂᆞᆺ다

胡塵踰太行 雜種抵京室 되 올젯 ᄃᆞ트 라 太行ᄉ 되트 ᄒᆞᆯ나마 여러 種類ㅣ 쉬믈니ᄅᆞ리오ᄂᆞ다

花門既須留 原野轉蕭瑟 蕭瑟은 猶蕭索也ㅣ라 此ᄂᆞᆫ 言花門을 既許留屯ᄒᆞ시니 原野ㅣ 從此로 被害而爲蕭索也ㅣ라 ○ 花門을 ᄒᆞ마 모로미 머믈우시니 드르흔 ᄀᆞ장 서의ᄒᆞ리로다

塞蘆子 蘆子ᄂᆞᆫ 關名이니 在延州ᄒᆞ니 甫欲塞之ᄒᆞ야 以備吐蕃이니라

五城何迢迢 迢迢隔河水 五城은 定遠과 西受降과 中受降과

東受降과豐安軍괘라迢迢ᄂᆞᆫ遠貌ㅣ라○다ᄉᆞᆺ城이조모머니머리河水를즈음ᄒᆞ얏다

邊兵盡東征城內空荊杞 時예諸將之兵이皆東征河北故로此城이無備而空虛也ㅣ라○ᄀᆞᅀᆡᆺ兵馬ㅣ다東녀그로征伐가니이城안ᄒᆞᄒᆞᆫ갓가시남기벗도다

思明割懷衛秀巖西未已回略大荒來崤函蓋虛爾 秀巖은史思明의將이라虛爾ᄂᆞᆫ言無備禦也ㅣ라○思明이懷州와衛州와를버혀가졋고高秀巖은西ㅅ녀그로오믈마디아니ᄒᆞᄂᆞ니大荒ㅅ뫼ᄒᆞᆯ혓도로뎌오면崤函이뷔리라

延州秦北戶關防猶可倚焉得一萬人疾驅塞蘆子 延州ᄂᆞᆫ秦ㅅ北녁門戶ㅣ니關

마고믈오히려어루비홀디니라엇뎨ᄒᆞ야
아一萬사ᄅᆞᆷ을어더ᄡᅳ리오라가盧子를마
그려뇨 岐有薛大夫旁制山賊起近關昆戎徒
爲退三百里 薛大夫ᄂᆞᆫ薛景仙이오昆戎은만番이라○岐州에薛大夫ㅣ
잇ᄂᆞ니ᄀᆞᅀᆞ로묏盜賊의니로믈制禦ᄒᆞᄂᆞ니近間애ᄃᆞ로니昆戎이무리爲ᄒᆞ야三百
里를믈려가니라 盧關扼兩寇深意實在此 兩寇ᄂᆞᆫ思明과
吐蕃이니라○盧子關이두도ᄌᆞᄀᆞᆯ막ᄂᆞ니기픈ᄠᅳ든眞實로여긔잇ᄂᆞ니라言 誰
能叫帝閽胡行速如鬼 此ᄂᆞᆫ言胡兵爽速이如鬼之行ᄒᆞ니乘隙
入寇ㅣ可畏니誰將此意ᄒᆞ야告於君上ᄒᆞ야以塞此關고○뉘能히님금門의물어ᄉᆞᆯ

오려ᄂᆞᆫ 되녀의 셜로미 ᄎᆞᆺ 것 곤ᄒᆞ니라

洗兵馬 甫ㅣ自註收京後作이라

中興諸將收山東捷書夜報清晝同 山東은河北也ㅣ라○中興ᄒᆞ여러將軍이山東을收復ᄒᆞ니사홈이긘글워리바미ᄆᆞᆯ외로몯블근낫과ᄒᆞᆫ가지로다

河廣傳聞一葦過胡兒命在破竹中 河ᄂᆞᆫ指衛州ᄒᆞ니郭子儀破賊於衛州ᄒᆞ니라一葦過ᄂᆞᆫ言易也ㅣ라破竹者ㅣ數節之後에迎刃而解ᄒᆞᄂᆞ니亦言易也ㅣ라○河水ᄅᆡ너부믈ᄒᆞᆫ낫골을타건나다傳聞ᄒᆞ리胡兒의목수미ᄈᆡ리ᄂᆞᆫ댓가오ᄃᆡ잇도다

祇殘鄴城不日得獨任

朔方無限功 時예 安慶緒ㅣ 據鄴城ᄒᆞ고 郭子儀爲朔方節度使ᄒᆞ니라○오직 殘破ᄒᆞᆫ 鄴城을 ᄂᆞᆯ이니ᄒᆞ야 ᄡᅥ 得ᄒᆞ리로소니 ᄒᆞ올로 朔方을 所任ᄒᆞ니 그지업슨 功이로다

京師皆騎汗血馬回紇餧肉蒲蜀宮 汗血馬ᄂᆞᆫ 諸將이 既收復故로 皆騎胡馬于京師ᄒᆞ야 以獻其功也ㅣ라 餧ᄂᆞᆫ 音委ᄒᆞ니 飼也ㅣ라 時예 回紇이 助兵討賊ᄒᆞ야ᄂᆞᆯ 帝就蒲蜀宮ᄒᆞ야 宴勞之ᄒᆞ니라○京師애 다 피ᄯᆞᆷ나ᄂᆞᆫ ᄆᆞᄅᆞᆯ ᄐᆞᄂᆞ니 回紇을 蒲蜀宮의 와 고기 머기놋다

已喜皇威清海岱常思仙仗過崆峒 海岱ᄂᆞᆫ 謂河北이라 崆峒山은 在西ᄒᆞ니라 此ᄂᆞᆫ 言喜肅宗之已清河北ᄒᆞ고 追恨玄宗之幸蜀也ㅣ라○님금 威嚴으로 海岱人 더ᄅᆞᆯ

몬기산고돌ᄒᆞ아깃고님금儀仗이崆峒山을디나가시던이로리쌍ᄉᆞ랑ᄒᆞ노라 三

年笛裏關山月萬國兵前草木風 自祿山이叛ᄋᆞ로조이

汉京師ㅣ九三年이니此ᄂᆞᆫ言萬國之兵이暴露草木之間ᄒᆞ며吹笳關山之夜ㅣ니라

○세ᄒᆡ를뎌소리ㅅ안해關山옛ᄃᆞ리오萬國ㅅ兵馬ㅅ알ᄑᆡ플와남긔ᄇᆞᄅᆞ미로다

成王功大心轉小郭相謀深古來必司徒清

鑑懸明鏡尚書氣與秋天杳 成王은廣平王俶이오郭相은

子儀오司徒ᄂᆞᆫ李光弼이오尚書ᄂᆞᆫ王思禮라心轉小ᄂᆞᆫ言不以功高로自矜이라秋天

杳ᄂᆞᆫ言其氣之高遠이라○成王은功이크샤ᄃᆡᄆᆞᄋᆞᆷ가지미ᄀᆞ장져그시고郭相은但

기프니 녜로 오매 적도다 司徒의 몰고 보믄 볼근 거우뤼 드랫ᄂᆞᆫ 듯고 尙書의 氣運은 ᄀᆞ옰 하ᄂᆞᆯ와 다뭇 아ᄉᆞ라ᄒᆞ도다

二三豪俊為時出整頓乾坤濟時了 두어 豪俊이 時節을 為ᄒᆞ야 나 乾坤을 고텨 時世ㅣ 거느리츄믈 뭇도다

東走無復憶鱸魚南飛覺有安巢鳥 晉人張翰이 見天下ㅣ將亂ᄒᆞ고 思吳中蓴羹鱸魚ᄒᆞ야 遂東歸ᄒᆞ니라 曹操詩예 烏鵲이 南飛ᄒᆞ야 無枝可依라ᄒᆞ니 言不安也ㅣ라 此ᄂᆞᆫ 言中興治安之氣象ᄒᆞ니라 ○東으로 ᄃᆞ라 鱸魚 ᄉᆞ랑ᄒᆞ리 ᄯᅩ 업고 南으로 ᄂᆞ라가기 쉬 편안히 안잿ᄂᆞᆫ 새 이슈믈 알리로다

青春復隨冠冕入紫禁正耐煙花繞 玉者之宮을 象紫微星故

로 曰紫禁이라 耐난 與奈同ᄒᆞ다 此난 言百
官이 當春時ᄒᆞ야 還京師ㅣ어ᄂᆞᆯ 春色이 亦
隨而入也ㅣ라○므ᄅᆞᆫ 보미 在冠冕ᄒᆞᆫ 사ᄅᆞ
ᄆᆞᆯ 조차 드러오니 大闕에 正히 너건 고지 버
므ᄢᅵ도다

鶴駕通霄鳳輦備 鷄鳴問寢龍樓曉

太子曰鶴駕ㅣ오 天子曰鳳輦이라 龍樓는 太子
入門名이라 此난 言肅宗이 乘鶴駕鳳輦ᄒᆞ
야 自龍樓로 問安玄宗也ㅣ라○鶴駕를 바
미ᄉᆞ 닷ᄃᆞ록 鳳輦을 ᄀᆞ초ᄒᆞ사 ᄃᆞᆯ기 울어든
龍樓入 새배로 셔 寢門에 가샤 安否를 뭇ᄌᆞᆸᄂᆞ다

攀龍附鳳勢莫當 天下盡化爲侯王

攀附龍鳳은 喩群臣의 依附天子也ㅣ라○龍을 ᄃᆡ
위자ᄇᆡ며 鳳을 브ᄐᆡ 그 勢를 當ᄒᆞ리 몯ᄒᆞ리
로소니 天下앳 자ᄅᆞ미 다 ᄀᆞ티 ᄃᆞ외야 諸侯

王이ᄃᆞ외얫도다 汝等豈知蒙帝力時來不得誇身

强當安史亂ᄒᆞ야武夫悍卒이有以戰功으로取富貴者ᄒᆞ니豈可以遭遇時運而誇身之強大리오此ᄂᆞᆫ諷以軍功으로自矜者也ㅣ라○너희ᄃᆞᆯ흔엇뎨님굼힘닙ᄉᆞ와쇼믈알리오時節엣다ᄒᆞ야서러곰몸의強大ᄒᆞᆫ믈자랑ᄒᆞ욜디아니니라

關中既留蕭丞相幕下復用張子房

賊平커ᄂᆞᆯ帝ㅣ以蕭華로留守故로比蕭何ᄒᆞ고以張鎬로爲幕府參謀故로比子房ᄒᆞ다○關中에ᄒᆞ마蕭丞相을머믈우시며幕下에ᄯᅩ張子房을ᄡᅳ시도다

張公一生江海客身長九尺鬚眉蒼

張公은即鎬ㅣ니蕭昕이薦之ᄒᆞ야ᄂᆞᆯ朝廷이擢用ᄒᆞ니라○

張公은一生애江海옛客이러니몯기리徵아ᄒᆞᆷ자히오입거웃과눈섭재세니라

起適遇風雲會扶顛始知籌策良 論語에顚而不扶ㅣ라ᄒᆞ니此ᄂᆞᆫ言扶持國危也ㅣ라○블려니러라風雲際會를마치맛나니섭더듀믈더위자보매비르서ᄢᅬ잘ᄒᆞ믈알리로다

青袍白馬更何有後漢今 侯景이乘青絲轡白馬ᄒᆞ니以比祿山ᄒᆞ니라周宣王漢光武ㅣ皆

周喜再昌 中興故로比肅宗ᄒᆞ니라○프른옷과힌ᄆᆞ른在어느이시리오後ㅅ漢과이젯周를다시昌盛ᄒᆞ믈깃노라

寸地尺天皆入貢奇祥異瑞爭來送 寸만ᄒᆞᆫᄯᅡ콰자만ᄒᆞᆫ하ᄂᆞᆯ히다사ᄅᆞ미다貢을드리ᄂᆞ니奇祥과異瑞를ᄃᆞ토와보

내야ᄒᆞ다 오 不知何國致白環復道諸山得銀甕 西王母ㅣ獻白環於舜ᄒᆞ니라銀甕은亦瑞物이라○아디몯ᄒᆞ리로다어느나라히白環을닐위오여러뫼해셔銀甕을어더다ᄯᅩ니ᄅᆞᄂᆞ다

隱士休歌紫芝曲 詞人解撰河清頌 四皓ㅣ避秦隱商山ᄒᆞ야作紫芝之曲ᄒᆞ니此ᄂᆞᆫ言隱士ㅣ今當出仕也ㅣ라鮑照ㅣ作河清頌ᄒᆞ다至德二年예黃河ㅣ清ᄒᆞ니此ᄂᆞᆫ言有文者ㅣ宜作頌也ㅣ라○隱居ᄒᆞᆫ사ᄅᆞ믄紫芝曲을브르디마ᄅᆞᆯ디어다글ᄒᆞᆯ사ᄅᆞᄆᆞᆫ黃河ㅣᄆᆞᆰ고頌을지오ᄆᆞᆯ마ᄅᆞᆯ디로다

田家望望惜雨乾布穀處處催春種 乾元二年春에旱故로云惜雨乾이라布穀은催耕之鳥ㅣ라○녀

름지을지비ᄇᆞ라며ᄇᆞ라셔비몰로믈슬ᄂᆞ니버국새ᄂᆞᆫ곤마다셔봀곡식심고믈뵈아ᄂᆞ다

淇上健兒歸莫懶城南思婦愁多夢 淇水ᄂᆞᆫ在衛州ᄒᆞ니時예思明의餘黨이未殄이어ᄂᆞᆯ衛相等州예尙屯兵ᄒᆞ니라城南은指長安城南ᄒᆞ다○淇水ㅅ우희벗ᄂᆞᆫ健壯ᄒᆞᆫ남지ᄂᆞᆫ도라오몰게을이말롤디어다城南엣ᄉᆞ랑ᄒᆞᄂᆞᆫ겨지븐시름ᄒᆞ야ᄭᅮ미하도다

安得壯士挽天河淨洗甲兵長不用 엇뎨ᄒᆞ야ᄡᅡ健壯ᄒᆞᆫ사ᄅᆞ믈어더天河롤ᄀᆞᆷ어다가甲兵을조히시서기리ᄡᅳ디말려뇨

徃在

往在西京時胡來滿彤宮 此ᄂᆞᆫ言祿山이陷長安也ㅣ라○이ᄢᅴ西京의이실제되돌히와大闕에ᄀᆞᄃᆞᆨᄒᆞ더니라 中宵焚九廟雲漢爲之紅 九廟ᄂᆞᆫ即宗廟ㅣ라○바ᄆᆡ九廟ᄅᆞᆯ블브티니하ᄂᆞᆯ히爲ᄒᆞ야븕더라 解瓦飛十里總帷紛曾空 總帷ᄂᆞᆫ廟中入細布帳이라○디새헤여디여十里예ᄂᆞᆯ이고總帷ᄂᆞᆫ노ᄑᆞᆫ層空애어즈러우니라 疚心惜木主一一灰悲風 木主ᄂᆞᆫ神主ㅣ라○ᄆᆞᅀᆞ매病ᄒᆞᄃᆞᆺᄒᆞ야神主ㅣᄂᆞᆺ나치ᄉᆞᆯ퓬ᄇᆞᄅᆞ매지ᄃᆞ외요ᄆᆞᆯᄉᆞᆯ호라 合昏排鐵騎清旭散錦幪 錦幪은기르마우희ᄡᅳᄂᆞᆫ거시라ᄡᅳᄂᆞᆫ皆言賊騎ㅣ充滿京中也ㅣ라○어스르메甲니븐ᄆᆞ

리버렛고아太미어든 錦幪ᄒᆞᆫᄆᆞ리ᄒᆞ렛더라 賊臣表逆節相賀以

成功 此ᄂᆞᆫ言祿山이僭位에ᄂᆞᆫ其臣이表賀也ㅣ라○賊臣도ᄒᆡ逆節의게上表ᄒᆞ 야功일우므로ᄡᅥ서르慶賀ᄒᆞ더니라 是時妃嬪戮連為糞土

叢 叢ᄋᆞᆫ聚也ㅣ라○이時節에妃嬪도ᄒᆞᆯ주기니니에ᄒᆞᆯ긔모도미ᄃᆞ외니라 當

宁陷玉座白間剝畫蟲 宁ᄂᆞᆫ門屛之間이니天子ㅣ當宁而立ᄒᆞ ᄂᆞ니라玉座ᄂᆞᆫ帝座ㅣ라白間은黼扆니畫雉ᄒᆞ야以飾之니라○宁를當ᄒᆞ야玉座ㅣ ᄲᅡ디옛고白間앳畫蟲이ᄠᅳᆮ드르니라 不知二聖處私泣百歲

翁 二聖은玄宗肅宗이라百歲翁은耆老人也ㅣ라○두님금가겨신ᄯᅡᄒᆞᆯ아디몯ᄒᆞ

야ᄂᆞᆯ근사ᄅᆞᆷ돌히아ᄅᆞᆷ도이우니라
車駕既云還楹桷欻穹崇
○此ᄂᆞᆫ言肅宗이還京ᄒᆞ야作營葺宮廟也ㅣ라○車駕ㅣᄒᆞ마이도라오샤宮廟ᄅᆞᆯ지ᅀᅳ시니라

忽然히노ᄑᆞ니라
故老復涕泗祠官樹椅桐
故老ᄂᆞᆫ感興復而泣ᄒᆞ고守祠之官은種此木ᄒᆞ야將伐爲琴瑟也ㅣ라○ᄂᆞᆯ근사ᄅᆞᆷ돌히ᄯᅩ울오祭ᄒᆞᄂᆞᆫ마ᄋᆞ리椅桐을시므니라

宏壯不如初已見帝力雄
言宮廟壯盛이雖不及未焚之前이나亦見帝力之雄壯也ㅣ라○어위여壯大ᄒᆞ요미처엄곤디몯ᄒᆞ나마님금ᄭᅴ히미雄盛ᄒᆞ샤ᄆᆞᆯ보리로다

前春禮郊廟祀事親聖躬
乾元元年에朝享大廟ᄒᆞ며有事南郊ᄒᆞ시니라○前春에郊와廟애禮ᄒᆞ샤

祭祀ᄒᆞ시논이ᄅᆞᆯ님금모미親히ᄒᆞ샤니라 微軀忝近臣景從陪

羣公 景從은如影之從形也ㅣ라○조고맛모미近臣을더러여그리메ᄌᆞᆺᄌᆞᆺᄒᆞ야

羣公과뫼ᄋᆞ오라 登階捧玉冊峩冕聆金鐘 玉冊은天子ㅅ

冊告之文也ㅣ라○階砌예올아玉冊올받고冠冕을노피스고金鐘ㅅ소리를듣소라

侍祠恧先露掖垣邇濯龍 先時예宗廟ㅣ末備어늘侍祠之官

이暴露ᄒᆞ야無行禮處ᄒᆞ니是可慚恧也ㅣ라掖垣은紫掖之垣이라濯龍은池名이니

一云宮名이라○祠祭ᄅᆞᆯ侍衛호매몬제밧기벗던이ᄅᆞᆯ븟그리노니掖垣이濯龍애갓

갑더니라 天子惟孝孫五雲起九重 王者ㅣ德至山陵則五雲

이 出ᄒᆞᄂᆞ니라 ○天子ㅣ 孝道ᄒᆞ시ᄂᆞᆫ 孫子ㅣ시니 玉色子루미 九重에 니렛도다

鏡奩換粉黛 翠羽猶葱朧 奩은 音簾이니 鏡匣也ㅣ니 供后廟神御之物也ㅣ라 翠羽ᄂᆞᆫ 飾神御之物也ㅣ라 此ᄂᆞᆫ 言帝拜陵寢ᄒᆞ야 撥新鏡匣이니라 ○거우릇지뵈 粉과 黛와ᄅᆞᆯ 밧고시니 프론지존 오히려 러려ᄒᆞ야 빗나도다

前者厭羯胡 後來遭犬戎 明皇時예 祿山과 代宗時예 吐蕃괘 皆隔長安ᄒᆞ니라 ○알ᄑᆡᄂᆞᆫ 羯胡ᄅᆞᆯ 아쳐러ᄒᆞ고 後에ᄂᆞᆫ 犬戎을 맛나니라

俎豆腐膻肉 罘罳行角弓 腐膻肉은 汙漫祭器也ㅣ라 罘罳ᄂᆞᆫ 屛也ㅣ라 行角弓ᄋᆞᆫ 言操弓矢ᄒᆞ야 狼藉宮朝也ㅣ라 ○俎豆에 누린고기 서벗고 罘罳엔 ᄉᆡᆯ화리 너더니라

安

得自西極申命空山東盡驅諸闕下士庶塞

關中 西極은指吐蕃이오山東은指祿山餘黨이라言欲掃空盜賊의巢穴ᄒᆞ야驅其殘黨ᄒᆞ야詣於京闕ᄒᆞ야密邇王化也ㅣ라○엇뎨지려곰西極으로브터다시命ᄒᆞ야山東을뷔워다모라闕下애나오와士庶ㅣ關中예ᄀᆞ득게ᄒᆞ려뇨

主將曉

逆順元元歸始終 言庶幾主將이曉識順逆之理ᄒᆞ야元元之民이始終애得有所歸ᄒᆞ야爲王之臣也ㅣ라○主將이거슬ᄡᅳ며順호믈아라百姓이始終개가게홀디니라

一朝自罪已萬里車書通 永泰元年正月에下制ᄒᆞ사有罪己之念ᄒᆞ시니故로天下애車同軌ᄒᆞ며書同文ᄒᆞ야無異俗也ㅣ라○ᄒᆞ

릇아太의모믈歸罪ᄒᆞ샤므로브터萬里예車와書왜通ᄒᆞ니라

鋒鏑供鋤犂征伐聽所從冗官各復業土著還力農 此ᄂᆞᆫ深望銷兵刃ᄒᆞ야以爲農器ᄒᆞ며罷征戍ᄒᆞ야聽其從便ᄒᆞ며沙汰冗官ᄒᆞ야使各復其業ᄒᆞ야土着而力農也ㅣ라○팔과삷이ᄃᆞ로호미와ᄡᅥ보ᄅᆞᆯᄆᆡᆼᄀᆞᆯ오征伐란百姓의좃고져ᄒᆞᄆᆞᆯ드르며煩冗ᄒᆞᆫ아ᄋᆞᆯ란各各제業에도라가게ᄒᆞ야ᄡᅥ해브터사라셔도로뎌ᄅᆞᆯ지이ᄅᆞᆯ힘ᄡᅥ케ᄒᆞᆯ디니라

君臣節儉足朝野懽呼同 此ᄂᆞᆫ言君臣이節儉ᄒᆞ야以是國用ᄒᆞ면朝野之間이共享懽樂이니라○님금과臣下왜節用儉約ᄒᆞ야足게ᄒᆞ면朝野ㅣ懽呼ᄒᆞ미ᄒᆞᆫ가지리라

中興似國初繼

體如太宗端拱納諫諍和風日冲融 冲融은 和也ㅣ라○다시興起ᄒᆞ샤미나랏처엄마ᄃᆞ시고 웃드믈니으샤미太宗ᄀᆞ티ᄒᆞ샤端拱ᄒᆞ샤 諫諍을드르시면和風이날로冲融ᄒᆞ리라

赤墀櫻桃枝隱映銀絲籠千春薦陵寢永永無窮 月令仲夏之月에薦櫻桃于寢廟ㅣ니라○赤墀옛이소랏가지銀실로ᄆᆡᆼᄀᆞ론籠애비취엿거든ᄌᆞ믄보믈陵寢에薦進ᄒᆞ야기리다ᅀᆞᆷ업시드리올디니라

京都不再火涇渭開愁容歸號故松栢老去若飄蓬 此ᄂᆞᆫ言京都ㅣ眞安ᄒᆞ야涇渭之間이開豁ᄒᆞ야民得歸祀墳墓ㅣ어늘唯甫ᄂᆞᆫ不得歸故鄕ᄒᆞ야若飄蓬이

니라○셔울히다시블븓디아니ᄒᆞ야涇渭옛사ᄅᆞ미시름ᄃᆞ왼양ᄌᆞ지흰ᄒᆞ야뎃松栢애가ᅀᆞᆯ어늘늘거가매블여ᄃᆞ니ᄂᆞ다봄곧호리

青絲

青絲白馬誰家子麤豪且逐風塵起 此ᄂᆞᆫ言僕固懷恩之亂ᄒᆞ니라○프른실로굴에ᄒᆞᆫ白馬ᄐᆞ니ᄂᆞᆫ뉘짓아ᄃᆞᆯ오멀터우미ᄯᅩ風塵을조차ᄃᆞ니ᄂᆞ다

不聞漢主放妃嬪近靜潼關掃蜂蟻 肅宗이復京師ᄒᆞ샤出宮女三千人故로借漢為言ᄒᆞ니라此ᄂᆞᆫ言君이有德故로能掃除盜賊也ㅣ라○漢ㅅ님그미妃嬪노ᄒᆞ샤ᄆᆞᆯ듣디아니ᄒᆞᄂᆞᆫ다요ᄉᆞ이예潼關을安靜ᄒᆞ와

蜂蟻를쁘러ᄃᆞ리치니라殿前兵馬破海時十月即爲虀粉期殿前兵馬ᄂᆞᆫ神策軍이라虀ᄂᆞᆫ菜肉之細切者ㅣ니比斬絕之禍ᄒᆞ니此ᄂᆞᆫ告以賊의破ᄂᆞᆫ之期ᄒᆞ다○殿살핏兵馬ㅣ너를破滅홀ᄣᅢᆫ十月이곧虀와粉과ᄀᆞ될期限이니라

未如面縛歸金闕萬一皇恩下玉墀此ᄂᆞᆫ教以悔過歸降ᄒᆞ면幸有赦宥之恩也ㅣ니라○ᄂᆞᆺ치내결에미이여金闕에옴만ᄀᆞᄐᆞ니업스니萬一에님금恩惠ㅣ玉墀에ᄂᆞ리시리라

近聞

近聞犬戎遠遁逃牧馬不敢侵臨洮臨洮ᄂᆞᆫ縣名이

라○요ᄉᆞ이예ᄃᆞ로니犬戎이머리수머몯
머규믈구틔여臨洮를侵逼디몯ᄒᆞ놋다

渭水逶迤白日靜隴山蕭瑟秋雲高 逶迤ᄂᆞᆫ長遠貌ㅣ오蕭瑟은寒凉貌ㅣ라言渭水ㅣ逶迤ᄒᆞ야與日俱靜ᄒᆞ고隴山이蕭瑟ᄒᆞ야共雲自高ᄒᆞ니可見無事矣라○渭水ㅣ길오白日이安靜ᄒᆞ고隴山이서늘ᄒᆞ고ᄀᆞᅀᆞᆯ구루미노팟ᄃᆞ다

崆峒五原亦無事北庭數有關中使 崆峒五原은指關隴ᄒᆞ니時예吐蕃이歸國故로無事ㅣ라北庭은指突厥이通好也ㅣ라○崆峒과五原괘ᄯᅩ이리업고北庭에저ᄌᆞ조關中에使者오미잇도다

似聞贊普更求親舅甥和好應難棄 贊普ᄂᆞᆫ吐蕃君長之號ㅣ라先

帝昔嘗和親ᄒᆞ야公主로嫁贊普ᄒᆞ니라舅ᄂᆞᆫ妻父ㅣ오甥은壻也ㅣ라○贊普ㅣᄯᅩ和親ᄒᆞ믈求ᄒᆞᄂᆞ다ᄃᆞᆺ논ᄃᆞᆺᄒᆞ니舅와甥과의和好ᄒᆞ믈당당히ᄇᆞ로미어렴거니ᄯᅥ녀

漁陽

漁陽突騎猶精銳赫赫雍王都節制 漁陽은指雍王所統之兵이라突騎ᄂᆞᆫ衝突敵人之騎ㅣ라赫赫은威名光顯也ㅣ라○漁陽엣突騎ㅣ오히려精ᄒᆞ며ᄂᆞᆯ나니빗난雍王이뫼화節制ᄒᆞ얏다

猛將飄然恐後時本朝不入非高計 時예河北諸將이尚有未入朝者故로曰汝等이飄然而來라도猶爲後於他人之降附ㅣ니不入本朝ᄂᆞᆫ豈爲高計리오○勇猛ᄒᆞᆫ將軍이

飄然히와도時節에떠딜가저프니本朝애
드려오디아니호미노론혜아로미아니라

祿山北築雄武城舊防敗走歸其營繫書請
問燕者舊今日何須十萬兵 祿山이築范陽北雄武城ᄒᆞ야
欲敗走而歸保ᄒᆞ니其計ㅣ至密호ᄃᆡ竟至
於亡ᄒᆞ니라此ᄂᆞᆫ擧祿山事ᄒᆞ야以警叛亂
者ᄒᆞ다史記예燕將이保聊城不降이어ᄂᆞᆯ
魯仲連이爲書繫矢射城中ᄒᆞ야喩利害ᄒᆞᆫ
대卽降ᄒᆞ니此ᄂᆞᆫ言叛亂者ᄂᆞᆫ何必待十萬
兵의來伐而不卽降乎오○祿山이北녁雄
武城을ᄲᅡ녜막던仇히敗ᄒᆞ야뽀치거든그
營에가리라ᄒᆞ더니라그를미야燕엣ᄂᆞᆫ근
사ᄅᆞᆷ더브러請問ᄒᆞ노니오ᄂᆞᆳ나
래엇뎨十萬兵馬ᄅᆞᆯ기들우리오

黃河二首

黃河北岸海西軍椎鼓鳴鍾天下聞 此ᄂᆞᆫ河北州郡也ㅣ라 言天下ㅣ聞鍾鼓之聲則兵勢盛矣로ᄃᆡ 至使胡人으로成群ᄒᆞ니 譏不能致力於禦侮ᄒᆞ니라○黃河ㅅ北녁 두듥과 바ᄅᆞᆺ西ㅅ녁軍의 갓붑티며 쇠붑울유믈 天下애셔 듣ᄂᆞ다

鐵馬長鳴不知數胡人高鼻動成群 此ᄂᆞᆫ言吐蕃이入寇也ㅣ라○甲니븐 ᄆᆞ리 기리 우ᄂᆞᆫ 낟數를 아디 몯ᄒᆞ리로소니 되사ᄅᆞᆷ이 고 노ᄑᆞ니 뮈여 무리 이렛도다

黃河西岸是吾蜀欲須供給家無粟 此ᄂᆞᆫ指嚴武之

軍ᄒᆞ니 愍蜀人의 困於供給ᄒᆞ니라 ○ 黃河

入西入ᄐᆡᆨ 두들근이 우리 蜀이 ᄂᆡ 軍士ㅣ 바도믈 기들위도지 비조히 업도다

顛驅衆庶戴君王混一車

書棄金玉

棄金玉은 顚君上之務本而不修靡也ㅣ라 ○ 顚ᄒᆞᆫᄃᆞᆫ 衆庶ᄅᆞᆯ 모라 님그믈 奉戴ᄒᆞ야 車와 書왜 混一케 ᄒᆞ고 金과 玉과란 ᄇᆞ리고라

自平

自平宮中呂太一收珠南海千餘日

代宗時에 市舶使 宦官 呂太一이 逐廣南節度使而叛ᄒᆞᆫ 뒤 群蠻이 亂ᄒᆞ야 珠璣之貢이 不來ᄒᆞ리니 誅太一而後에아 南海ㅣ 乃貢ᄒᆞ니라 ○ 宮中人 呂太一을 平ᄒᆞ요ᄆᆞ로 브터아 南海옛 구스

를投貢호미즈믄나믄나라러니라 近供生犀翡翠稀復恐征

戍干戈密 此ᄂᆞᆫ言廣南貢獻이近來稀少ᄒᆞ니恐鎮守者ㅣ不能懷柔群蠻ᄒᆞ야復致亂也ㅣ라○요ᄉᆞ이예生犀와翡翠와ᄅᆞᆯ바티리드므니任征戍ᄒᆞ야干戈ㅣ한가전노라

蠻溪豪族小動搖世封刺史非時朝 時예桂州山獠ㅣ反ᄒᆞ니라又太宗時예蠻酋歸順者ᄅᆞᆯ皆世授刺史ᄒᆞ야不比內諸侯ᄒᆞ야羈縻而已러라○蠻溪엣豪族이저기뮈여ᄅᆞᆯ외면世世로刺史ᄅᆞᆯ封ᄒᆞ야ᄃᆞᆫ時로來朝티아니ᄒᆞᄂᆞ니라

蓬萊殿裏諸將才如伏波不得驕 此ᄂᆞᆫ言太宗時예諸將이皆類馬援故로群蠻이畏服ᄒᆞ더니傷今不然ᄒᆞ니라○

蓬萊殿안햇여러主將은지죄伏波
ᄀᆞᆮᄒᆞᆫ셔시려곰驕慢티몯ᄒᆞ리니라

歲晏行

歲云暮矣多北風瀟湘洞庭白雲中 ᄒᆡᄂᆞᆫ져 北녁ᄇᆞ
ᄅᆞ미하니瀟湘과洞庭 괘힌구룸가온ᄃᆡ로다 漁父天寒網罟凍莫
徭射鴈鳴桑弓 長沙郡에有吏ᄒᆞ니名曰 莫徭ㅣ니라○고기자ᄇᆞᆯ사
ᄅᆞ미하ᄂᆞᆯ히치워그므리어니莫徭ㅣ 그려기ᄡᅩ노라ᄲᅩᆼ나모화ᄅᆞᆯ울이ᄂᆞ다 去年
米貴闕軍食今年米賤大傷農 니건ᄒᆡᄡᆞ리 貴ᄒᆞ야軍士
의바비闕ᄒᆞ더니올ᄒᆡᆫᄡᆞ리흔 ᄒᆞ야녀름지으리ᄅᆞᆯ傷害토다 高馬達官厭

酒肉此輩杼軸茅茨空 此輩ᄂᆞᆫ指農人ᄒᆞ다 此ᄂᆞᆫ言在位者ㅣ不知恤民ᄒᆞ고但聚斂이太重ᄒᆞ야杼軸이不用而空虛ㅣ라○노ᄆᆞᆫ믈ᄐᆞᆫ達官은술와고기ᄅᆞᆯ아쳣거ᄂᆞᆯ이무른북과도토마리새지비뷔옛도다

楚人重魚不重鳥汝休枉殺南飛鴻 ○此聯은應射鴈句ᄒᆞ다 ○楚人사ᄅᆞᄆᆞᆫ믈고기ᄅᆞᆯ重히너기고새ᄅᆞᆯ重히너기디아니ᄒᆞᄂᆞ니너ᄂᆞᆫ南녀그로ᄂᆞᄂᆞᆫ그려기ᄅᆞᆯ외오주기디말라

況聞處處鬻男女割慈忍愛還租庸 ᄒᆞ몰며드론ᄃᆞᆫ마다아ᄃᆞᆯ와ᄯᆞᆯ와ᄅᆞᆯᄑᆞ라어엿비너교ᄆᆞᆯ버히며ᄉᆞ랑호ᄆᆞᆯᄎᆞ마貢稅ᄅᆞᆯ바티다ᄂᆞᆺ

往日用錢捉私鑄今許鉛錫和青銅

泥為之最易得好惡不合長相蒙 唐制예盜鑄者ㅣ死ㅣ러니至天寶間ᄒᆞ야盜鑄ㅣ益甚ᄒᆞ야雜以鉄錫ᄒᆞ야刻綵作模ᄒᆞ니無復錢形이로뒤上下ㅣ蒙蔽而不糾察ᄒᆞ니라○니건나란돈ᄡᅳ믈아ᄅᆞᆷ뎌디릴잡더니이젠鉛錫을青銅애섯구믈許ᄒᆞ니ᄒᆞᆯᄀᆞᆯ사겨밍ᄀᆞ라안직수이엿ᄂᆞ니조ᄒᆞ며사오나오미맏디아니ᄒᆞ도다기리서르ᄃᆞᆸ더펏다

萬國城頭吹畫角此曲哀怨何時終 萬國人城우희畫角을부ᄂᆞ니이놀애슬프며怨恨ᄃᆞ외니어느時節에ᄆᆞᄎᆞ려뇨

蠶穀行

天下郡國向萬城無有一城無甲兵時예盜賊이充斥ᄒᆞ야天下ㅣ皆用兵也ㅣ라○天下앳郡國이一萬城이ᄃᆞ외야가ᄂᆞ니ᄒᆞᆫ城에도甲兵업슨ᄃᆡ업도다焉得鑄甲作農器一寸荒田牛得耕井엇뎨시러곰甲을지여農器를ᄆᆡᆼᄀᆞ라一寸만ᄒᆞᆫ거츤바티라도시러곰갈리ᄂᆞ뇨牛盡耕田蠶亦成不勞烈士淚滂沱男穀女絲行復歌烈士ㅣ見蚕農之廢ᄒᆞ면哀傷ᄒᆞᄂᆞ니今得耕桑則不勞滂沱淚也ㅣ니라○쇠다바ᄐᆞᆯ갈오누에ᄯᅩ이러烈士의우루믈잇비아니ᄒᆞ야남진ᄂᆞᆫ穀食을엇고겨지븐실ᄒᆞ고ᄃᆞᆫ녀셔ᄯᅩ놀애브르려뇨

折檻行 時예崔旰이作亂이어늘言援西川節度使ᄒᆞ고後에累遷工部尙書ᄒᆞ야ᄂᆞᆯ朝廷에無一人이敢言故로甫ㅣ有感於朱雲의折檻而作此詩ᄒᆞ다

嗚呼房魏不復見秦王學士時難羨 太宗이秦王時예開文學舘ᄒᆞ고以杜如晦等으로兼學士ᄒᆞ니라○슬프다房玄齡魏徵을다시보디몯ᄒᆞ리로소니秦王ㅅ學士ᄅᆞᆯ이제브르미어렵도다

青襟冑子困泥塗白馬將軍若雷電 青襟冑子ㅣ謂儒生이라魏人龐德이常乘白馬ㅣ어늘時稱白馬將軍이라ᄒᆞ다若雷電은喩其威勢ᄒᆞ니言武人之得志也ㅣ라○

青襟니븐 曹子ᄂᆞᆫ 존ᄒᆞᆯ 귀 困ᄒᆞ얫거늘 白馬ᄐᆞᆫ 將軍은 울에 ᄀᆞ도다

千載少似朱雲人 至今折檻空嶙峋이 漢成帝時예 朱雲이 請斬安昌侯張禹ᄒᆞᆫ대 帝怒ᄒᆞ야 令御史로 將雲下殿이어늘 雲이 攀檻折ᄒᆞ니라 嶙峋은 高貌ㅣ라 ○

千載예 朱雲ᄀᆞᄐᆞᆫ 사ᄅᆞ미 져그니 이제 니르히 것근 欄檻이 ᄒᆞᆫ갓 노햇도다

婁公不語宋公語 尙憶先皇容直臣 婁師德 宋璟也ㅣ라 此ᄂᆞᆫ 追想太宗之容納直臣이라 ○

婁公이 니ᄅᆞ디 아니ᄒᆞ야ᄂᆞᆯ 宋公이 니ᄅᆞ더니 오히려 先皇ㅅ 直臣을 容納ᄒᆞ더신 이ᄅᆞᆯ 思憶ᄒᆞ노라

天邊行

天邊老人歸未得日暮東臨大江哭 甫ㅣ客居天邊ᄒᆞ야遭亂不歸故鄕也ㅣ라○하ᄂᆞᆳᄀᆞᅀᆡ늘근사ᄅᆞ미도라가ᄆᆞᆯ得디몯ᄒᆞ야힛나조ᄒᆡ東녀그로큰ᄀᆞᄅᆞ믈디러셔우노라

隴右河源不種田胡騎羌兵入巴蜀 時예吐蕃이陷隴右故로河源이不得種田ᄒᆞ니라○隴右와河源괘바ᄐᆞᆯ시므디몯ᄒᆞ니되ᄆᆞᆯᄐᆞᆫᄂᆡ과되兵괘巴蜀애드닷다

洪濤滔天風拔木前飛禿鶖後鴻鵠 큰믌겨리하ᄂᆞᆯ해다ᄒᆞ얫고ᄇᆞᄅᆞ미남ᄀᆞᆯᄲᅡ혀ᄂᆞ니알피ᄂᆞᄂᆞᆫ禿鶖ㅣ오뒤헤ᄂᆞᆫ鴻鵠이로다

九度附書向洛陽十年骨肉無消息 아홉버늘書信을브텨洛陽ᄋᆞ로向ᄒᆞ야보내

요니 열히롤 아ᄋᆞ뫼 消息이 업도다

大麥行

大麥乾枯小麥黃婦女行泣夫走藏東至集壁西至梁洋問誰腰鎌胡與羌 集壁梁洋은 蜀ㅅ 四州名이라 時예 吐蕃이 入寇ㅣ어늘 四州之民이 皆奔竄山谷ᄒᆞ니 셔 麥者ㅣ 惟羌胡耳니라 ○보리ᄂᆞᆫ 몰라 이울고 밀흔 누르거늘 겨집돌ᄒᆞᆫ ᄃᆞ티 울어늘 남지ᄂᆞᆫ ᄃᆞ라가 수멧도다 東으로 集壁에 니르며 西ㅅ녀그로 梁洋히 믄노라 뉘 히리예 나ᄃᆞᆯ 가젯ᄂᆞ뇨 되사 다못 羌이로다

豈無蜀兵三千人部領辛苦江山長 言非無蜀

兵이遇賊者ㅣ언마ᄂᆞᆫ但士卒이从後ᄒᆞ야辛苦於江山耳니라○엇뎨蜀人兵卒이三千人이업스리오마ᄂᆞᆫ部領이江山이긴ᄃᆡ受苦ᄒᆞ놋다

安得如鳥有羽翅託身白雲歸故鄉 此ᄂᆞᆫ言厭亂懷鄕之意ᄒᆞ니라○엇뎨시러곰새곤ᄒᆞ야ᄂᆞᆯ개이셔모미힌구루메브터故鄕애가려뇨

苦戰行

苦戰身死馬將軍自云伏波之子孫 時예段子璋이反ᄒᆞ야遂州ㅣ어ᄂᆞᆯ馬將軍이戰沒ᄒᆞ니라○受苦로이사호다가모미주근馬將軍이여利ᄒᆞᆫ일오ᄃᆡ伏波의子孫이로라ᄒᆞ더라

干戈未定失壯士使我

歎恨傷精魂 干戈ㅣ安定몯ᄒᆞᆫ 옛거늘 壯士ᄅᆞᆯ 일흐니 날로 ᄒᆞ여 嗟嘆ᄒᆞ며 뉘우처 넉슬 슬허케 ᄒᆞᄂᆞ다

去年江南討狂賊臨江把臂難再得別時孤雲今不飛時獨看雲淚橫臆

此ᄂᆞᆫ 南ㅣ與馬將軍으로 去年에 把臂訣別ᄒᆞ고 今에 悵望別處之雲而傷其死也ㅣ니라 ○너건ᄎᆡ에 江南애 미친 盜賊 틸 저긔 ᄀᆞᄅᆞ몰 지러 블자뱃던 이ᄅᆞᆯ 다시 어도미 어렵도다 여흴 젯 뫼로왼 구루미 이제 ᄂᆞ디 아니ᄒᆞ옛ᄂᆞ니 時時예 ᄒᆞ올로 구루믈 보고 눖므를 가ᄉᆞ매 빗 흘리노다

去秋行

去秋涪江木落時臂槍走馬誰家兒 此ᄂᆞᆫ即上篇馬將軍의戰沒遂州事也ㅣ라○니건ᄀᆞᅀᆞᆯᄒᆡ涪江애나못닙딜제槍을ᄇᆞᆯ희ᄢᅵ고ᄆᆞᆯᄃᆞᆯ이더닌뉘짓아ᄃᆞᆯ오

到今不知白骨處部曲有去皆無歸 大將軍營에有五部ᄒᆞ니部下애有曲而曲有軍候一人ᄒᆞ니라○이제니르러흰ᄲᅧ잇ᄂᆞᆫᄯᅡᄒᆞᆯ아디몯ᄒᆞ리로소니部曲이가고다도라오디몯ᄒᆞ도다

遂州城中漢節在遂州城外巴人稀 此ᄂᆞᆫ言將軍이已死ᄒᆞ니所持之節이獨在城中ᄒᆞ고兵敗而死者多故로巴人이稀少ㅣ니라○遂州城ㅅ가온ᄃᆡ漢人符節이잇고遂州城ㅅ밧긘巴州人사ᄅᆞ미드므도다

戰場寃魂每夜

哭空令野營猛士悲 사호던仟햇애와티논녁시밤마다우ᄂ니호

갓野營엣勇猛호士卒로히여슬케ᄒ놋다

光祿坂行

山行落日下絶壁西望千山萬山赤 山赤은返照之

先이라○뫼ᄒ로녀디논히예노ᄅᆞᆫ石壁으로ᄂ려오니西ㅅ녀그로ᄇ라오니千山萬

山이블것도다 樹枝有鳥亂鳴時暝色無人獨歸客

客은甫ㅣ自謂ㅣ라○나못기지예잇논새어즈러이우논ᄢ나죗비체사ᄅᆞᆷ업슨뒤호

온차가논客이로라 馬驚不憂深谷墜草動只怕長弓

射此는言不憂山路之險이오但恐盜賊之害니라○ᄆᆞ리놀라도기튼고리딜가시름아니커니와프리움즈기거든긴활로솔가오직전노라安得更似開元中道路即今多擁隔開元時예天下ㅣ外平ᄒᆞ야道路애無盜賊ᄒᆞ더니今則不然이라○엇뎨시러곰다시開元中곧ᄒᆞ려뇨길히끔이젼마로미하도다

北風

北風破南極朱鳳日威垂洞庭秋欲雪鴻鴈將安歸陰風이吹破陽方으로喻世亂ᄒᆞ니라威垂ᄂᆞᆫ無氣象貌ㅣ라鳳之威垂

와 鴻鴈之無歸ᄂᆞᆫ 喻君子ㅣ 値亂世而失所也ㅣ라 ○ 北녁 ᄇᆞᄅᆞ미 南極을 헐이ᄂᆞ니 블근 鳳은 나ᄂᆞᆯ 威垂ᄒᆞ도다 洞庭에 ᄀᆞ올히 ᄂᆞᆫ오고져 ᄒᆞᄂᆞ니 그려기ᄂᆞᆫ 將次 어드러 갈고

十年殺氣盛六合人烟稀 六合은 天地四方이라 ○ 열 히ᄅᆞᆯ 殺氣ㅣ 하니 六合애 사ᄅᆞᄆᆡ 집 닛ᄂᆡ 드므도다 吾慕漢初老時淸猶茹芝 言慕四皓의 當漢無事時ᄒᆞ야 尙畏禍而隱也ㅣ라 ○ 나ᄂᆞᆫ 漢人 처ᅀᅥᆷ 늘근 사ᄅᆞ미 時節이 몱고 뎨오히려 芝草ㅣ 머굼을 思慕ᄒᆞ노라

客從

客從南溟來遺我泉客珠 泉客은 即鮫人이 泣淚成珠者也ㅣ

라○나그내南녁바ᄅᆞ로브터와나ᄅᆞᆯ泉客의구스를주ᄂᆞ다 珠中有隱字

欲辨不成書 구슰가온ᄃᆡ그ᄉᆞ근字ㅣ잇ᄂᆞ니ᄀᆞᆯᄒᆡ요리라호니그리이디아니ᄒᆞ도다

緘之篋笥久以俟公家須開視化為

血哀今徵斂無 此詩ᄂᆞᆫ寓意公家의徵斂所無之物ᄒᆞ니必言泉客珠者ᄂᆞᆫ本自無而出ᄒᆞ야今又為血ᄒᆞ니無以供公家之須也ㅣ라○설ᄀᆡ열거두ᄆᆞᆯ오래ᄒᆞ야그윗지븨셔須求호ᄆᆞᆯ벼ᄅᆞᆷ기들우다니여러본ᄃᆞᆫ피ᄃᆞ외얫ᄂᆞ니이제업순것徵斂호ᄆᆞᆯ슬노라

白馬

白馬東北來空鞍雙貫箭 大歷三年에商州兵馬使劉洽이殺刺史殷仲卿ᄒᆞ니此ᄂᆞᆫ言仲卿이已死而其馬ㅣ負空鞍來也ㅣ라○ᄒᆡᆫᄆᆞ리東北으로셔오니뷘기르마애두사리ᄢᅦ엿도다

可憐馬上郎意氣今誰見 可히슬프다몸우흿郎의意氣를이제뉘셔더보리오

近時主將戮中夜商於戰 商於ᄂᆞᆫ地名이라○요ᄉᆞ이예主將이주그니바ᄆᆡ商於의셔사호니라

喪亂死多門嗚呼淚如霰 死多門은一言死亡이非一事也ㅣ라○喪亂애주구미門戶ㅣ하니슬프다ᄂᆞᆫ므를무뤼ᄠᅳ리ᄃᆞᆺᄒᆞ노라

三絶句

前年渝州殺刺史今年開州殺刺史 此ᄂᆞᆫ言步將吳璘이殺渝州刺史劉卞ᄒᆞ고部卒翟封이殺開州刺史蕭崇之니라○前年의渝州예셔刺史ᄅᆞᆯ주기고올ᄒᆡᆫ開州예셔刺史ᄅᆞᆯ주기도다

群盜相隨劇虎狼食人更肯留妻子 言盜賊의서르조차미범과일히라와심ᄒᆞ니사ᄅᆞᄆᆞᆯ먹거니다시妻子기텨두믈즐기리아

二十一家同入蜀唯殘一人出駱谷 此ᄂᆞᆫ言百姓이隨玄宗入蜀者ㅣ凡二十一家ㅣ러니還出駱谷者ㅣ但存一人也라○스믈ᄒᆞᆫ지비ᄒᆞᆫᄢᅴ蜀애드러가니오직衰殘ᄒᆞᆫᄒᆞᆫ사ᄅᆞ미駱谷ᄋᆞ로나오ᄂᆞ다 自說二女齧

臂時迴頭却向秦雲哭 史記예吳起與母로齧臂而別ᄒᆞ니라言此人이自說與其女로齧臂相別之時ᄒᆞ고迴頭望蜀而痛傷也ㅣ라○두ᄯᅥ리ᄇᆞᆯ너흐뎐ᄢᅴ제니ᄅᆞ고머리ᄅᆞᆯ돌아도로秦雲을向ᄒᆞ야우ᄂᆞ다

殿前兵馬雖驍雄縱暴略與羌渾同 驍ᄂᆞᆫ健也ㅣ라吐谷渾ᄋᆞᆫ西羌之種이라○殿알핏兵馬ㅣ비록驍雄ᄒᆞ나모디로미제기되와다ᄆᆞᆺᄅᆞᆫ도다

聞道殺人漢水上婦女多在官軍中 時예命陸璀ᄒᆞ야以神策軍으로壓蜀亂ᄒᆞᆫ대虜掠婦女ᄒᆞ야殘暴ㅣ甚於羌渾ᄒᆞ니라○니ᄅᆞ거늘드로니漢水ㅅ우희서사ᄅᆞᄆᆞᆯ주기니겨지비胡官軍ㅅ中에잇도다

分類杜工部詩卷之四

分類杜工部詩卷之五

時事下 律詩四十四首

、巴山

巴山遇中使云自陝城來 巴山은即閬州ㅣ라中使ᄂᆞᆫ天子ㅅ內使ㅣ라○巴山애中使를맛나니陝城으로브터셔오라니ᄅᆞ다 盜賊還奔突乘輿恐未迴 乘輿ᄂᆞᆫ天子ㅅ所乘이니不敢斥言天子故로言乘輿ㅣ니라時예吐蕃이入寇ㅣ어늘代宗이幸陝ᄒᆞ시니라○盜賊이도로奔突ᄒᆞᄂᆞ니乘輿ㅣ도라오디몯ᄒᆞ실가젇노라 天寒邵伯樹地闊望仙臺

望仙臺ᄂᆞᆫ漢武所建이니在華州ᄒᆞ니라○하ᄂᆞᆯ ᄒᆞᆫ 邵伯의 남긔 치뭇거늘 ᄯᅡᄒᆞᆫ 望仙臺예 어위크도다

狼狽風塵裏群臣安在哉

狽ᄂᆞᆫ前足이短ᄒᆞ야常駕狼乃行ᄒᆞ고失狼則不能行故로世言事之睽乖로爲狼狽니라風塵은謂亂也ㅣ라此ᄂᆞᆫ譏臣子의不恤國亂也ㅣ라○風塵소배어려이ᄃᆞᆫ니시ᄂᆞ니群臣은어듸잇ᄂᆞ니오

喜聞官軍已臨賊境二十韻

至德二年에郭子儀等이討慶緖也ㅣ라

胡虜潛京縣官軍擁賊壕

京縣은京師之縣也ㅣ라胡虜ᄂᆞᆫ指

安慶緒ㅣ라○되돌히京縣이潛藏ᄒᆞ얏거ᄂᆞᆯ官軍이盜賊의城壕를ᄢᅦ렛도다鼎

魚猶假息穴蟻欲何逃此四句ᄂᆞᆫ言賊雖潛於京邑ᄒᆞ나王師ㅣ

已臨ᄒᆞ니其勢ㅣ終必敗亡ㅣ니라○소ᄐᆡᆺ고기ᄂᆞᆫ오히려비러숨쉬어니와굼긧가야

미ᄂᆞᆫ어드러逃ᄒᆞ고져ᄒᆞ리오帳殿羅玄冕轅門照白袍帳殿

은行在예以帳으로爲殿이라玄冕은卿大夫之服이라轅門은軍中에以車轅으로爲

軍門이라白袍ᄂᆞᆫ梁人陳慶之兵이皆着白袍ᄒᆞ니라此下로至莫徒勞ᄂᆞᆫ極陳行殿軍

容之盛과賊勢之窮ᄒᆞ니라○帳殿에거믄冕스니버러잇고轅門에힌오시비취엿도

다秦山當警蹕漢苑入旌旄天子ㅣ入警出蹕이니此ᄂᆞᆫ言

肅宗이在鳳翔也ㅣ라○秦ㅅ모히警蹕ᄒᆞᄂᆞᆫᄃᆡ當ᄒᆞ얫고漢ㅅ林苑은旌旗잇ᄂᆞᆫᄃᆡ드햇도다

路失羊腸險雲橫雉尾高 羊腸은險路ㅣ니此ᄂᆞᆫ言肅宗이自靈武로來鳳翔時예所經之路ㅣ無盜賊之險也ㅣ라雉尾ᄂᆞᆫ宮扇也ㅣ라○길흔羊腸의險호미일코구루믄雉尾ㅣ노픈ᄃᆡ빗겻도다

五原空壁壘八水散風濤 五原은近長安地名이라八水ᄂᆞᆫ見北征詩註ᄒᆞ다散風濤ᄂᆞᆫ喻寇亂이解散也ㅣ라○五原엔盜賊의壁壘ㅣ뷔엿고여듦므렌ᄇᆞᄅᆞ매믌겨리흐텃다

今日看天意遊魂貸爾曹 遊魂은言賊이雖生ᄒᆞ나魂已遊散ᄒᆞ니天이姑貸借其生耳니라○오ᄂᆞᆳ나래하ᄂᆞᆳᄠᅳ들보니일흔넉슬너희무를빌

여두겨시니라乞降那更得尚詐莫徒勞賊이常時예窘迫거
든乞降ᄒᆞ고그리티아니커든尚詐ᄒᆞᄂᆞ니
ᄉᆞ爲王師의所擒ᄒᆞ더欲復如是라도不可
得이니라○降服ᄒᆞ야지라비르믈이ᄂᆞ니
시혀ᄃᆞ리리오奸詐ᄅᆞᆯ崇尚ᄒᆞ믈ᄒᆞᆫ갓잇비말
라元帥歸龍種司空握豹韜龍種은廣平王俶이爲兵馬元
帥ㅣ오司空은郭子儀라豹韜ᄂᆞᆫ太公의六
韜之一이니言子儀ㅣ韞兵謀也ㅣ라此下
로至向秋毫ᄒᆞ야極稱將帥ㅣ皆忠勇之才오
王師ㅣ有無敵之勢ㅣ라○元帥ㅣ入兩任이
龍種애깃고司空이豹韜ᄅᆞᆯ자벗도다前軍蘇武節左將呂虔
刀蘇武節은言前軍이皆守節之士ㅣ라晉ㅅ呂虔의佩刀ᄅᆞᆯ相者曰三公이아可佩

라ᄒᆞ니言左將이有輔相之才라○알ᄑᆡ가
ᄂᆞᆫ軍은蘇武의符節을가젯고左ㅅ녁將軍
은呂虔의갈ᄒᆞᆯᄎᆡ도다兵氣回飛鳥威聲沒巨鼇言兵氣及
軍威ㅣ凜烈可畏ᄅᆞ시鳥鼇ㅣ爲之回飛與
沒水ㅣ니라○兵氣엣ᄂᆞᆫ새횟도라가고
므의여운소리엣큰머부비므레ᄃᆞᆷᄂᆞ다戈鋋開雪色弓矢向秋
毫開雪色은言鋒刃之光也ㅣ라向秋毫ᄂᆞᆫ
言雖微細라도必中也ㅣ라○戈와鋋과
ᄂᆞᆫ눈비치어렛ᄂᆞᆫᄃᆞᆺ고활와살
와ᄂᆞᆫᄀᆞᄂᆞᆳ터리ᄅᆞᆯ向ᄒᆞᄂᆞ다天步艱方盡
時和運更遭天步ᄂᆞᆫ猶天運이라言時運이
向泰也ㅣ라○天步의艱難ᄒᆞ요
미뵈야ᄒᆞ로다ᄋᆞᄂᆞ니時節이
됴ᄒᆞᆫ運을다시맛니렛도다誰云遺毒螫

已是沃腥臊 毒螫腥臊ᄂᆞᆫ喩盜賊ᄒᆞ니言必掃盡無留也ㅣ라○뉘날오뎌모딜에소ᄂᆞᆫ거ᄅᆞᆯ기리두리라ᄒᆞ리오ᄒᆞ마이비뉘ᄒᆞᆫ거슬시서ᄇᆞ리리로다

眷想丹墀近 神行羽衛牢 神行은天子之行이라言車駕可還京師而儀衛ㅣ無警也ㅣ라○님금스치샤미丹墀예갓가오시니神行엣羽葆ㅅ侍衛호미굳도다

花門騰絶漠 拓羯渡臨洮 花門은回紇이라漠은沙漠北方之地라拓羯은指安西等國이라臨洮ᄂᆞᆫ縣名이라此以下ᄂᆞᆫ言回紇等이助順討賊也ㅣ라○花門은沙漠으로셔돌여오고拓羯은臨洮ᄅᆞᆯ건너오ᄂᆞ다

此輩感恩至 羸俘何足操 此輩ᄂᆞᆫ指回紇等이感唐德而至也ㅣ라俘ᄂᆞᆫ軍獲也ㅣ

니指慶緖ㅣ라何足操ᄂᆞᆫ言不足用力而操之也ㅣ라○이무리恩惠를感激ᄒᆞ야오ᄂᆞ니시드러운停獲은엇뎨足히자ᄇᆞ리오

鋒先衣染血騎突劍吹毛

凡戰에先行者曰先鋒이라吹毛ᄂᆞᆫ言劍刃之利ᄒᆞ다○鋒先으로가매오새피뭇고믈돌여가ᄂᆞᆫ갈ᄒᆞᆫ터리를불리로다

喜覺都城動悲連子安

號家家賣釵劍準擬獻香醪

釵劍은賣環也ㅣ라싸ᄂᆞᆫ收京師而百姓이悲喜ᄒᆞ야欲市酒以獻而相慶也ㅣ라○깃부미都城에뮈유믈알리로소니슬프믄남진겨지븨우루미니엣도다집마다빈혀와불쇠와로ᄑᆞ라香氣로왼수를받ᄌᆞᆸ고져니가놋다

喜達行在所三首 甫ㅣ自賊中으로至鳳翔而作也ㅣ라

西憶岐陽信無人遂却迴 岐陽이在鳳翔ᄒᆞ니時예肅宗이駐蹕於此ᄒᆞ시니라此ᄂᆞᆫ言甫ㅣ在賊中ᄒᆞ야思行在之信而無人이從帝所來也ㅣ라○西ㅅ녀그로岐陽ᄋᆡᆺ音信을ᄉᆞ랑ᄒᆞ니사ᄅᆞ미그러셔도라오리업더라

眼穿當落日心死著寒灰 言西向而望ᄒᆞ니眼如穿이오心折ᄒᆞ야無生意ᄒᆞ니如著寒灰ㅣ니라○누니ᄠᅮᆯ게ᄇᆞ라오ᄆᆞᆯ디ᄂᆞᆫᄒᆡᄅᆞᆯ當호니ᄆᆞᅀᆞ미주그니ᄎᆞᆫᄌᆡᄅᆞᆯ노혓ᄂᆞᆫᄃᆞᆺ도다

霧樹行相引蓮峯望或開 行路之間에望樹則如引我之行이오望山則或見其背ᄒᆞ며或見其面也ㅣ라○雲霧션남근녀가매서르

여고 蓮花峯은 ᄇᆞ라 니시혹 여러 뵈놋다라

所親驚老瘦 辛苦賊中來 親ᄒᆞᆫ 밧사ᄅᆞ미 늙고 여위요ᄆᆞᆯ 놀라 ᄂᆞ니 辛苦히 盜賊의 서리로셔 오라

愁思胡笳夕 淒涼漢苑春 愁思ᄂᆞᆫ 言陷賊之 久에 數聽胡笳也ㅣ라 淒涼은 言苑囿ㅣ 雖春이나 喪亂殘弊 故로 淒涼也ㅣ라 ○ 시름ᄃᆞ왼 ᄠᅳ데 되픐뎌 부ᄂᆞᆫ 나조히여 서늘코 슬픈 漢苑ㅅ 보미로다

生還今日事 間道暫時人 暫時人은 間隙之道애 遇賊則不保性 命이니 是乃暫時爲人也ㅣ라 ○ 사라 도라오미 오ᄂᆞᆳ나리니 ᄉᆞᅀᆞᆺ 길ᄒᆞ로 아니 한 ᄢᅳᆫ 사ᄅᆞ미러라

司隷章初覩 南陽氣已新 光武爲司隷校尉ᄒᆞ야 置僚屬 을 一如舊章ᄒᆞᆫ대 老吏曰復見

漢官威儀라ᄒᆞ고又光武紀예望氣者ㅣ遥望南陽舂陵曰氣佳哉라ᄒᆞ니皆比肅宗ㅅ中興也ㅣ라○司隷ㅅ버블처엄보니南陽ㅅ氣運이ᄒᆞ마ᄭᆡ롭도다

喜心翻到極嗚咽淚沾巾

此ᄂᆞᆫ樂極而哀也ㅣ라○깃븐ᄆᆞᅀᆞ미도ᄅᆞ혀ᄆᆞᆺ장ᄒᆞ요매우러눉므를手巾에저지노라

死去憑誰報歸來始自憐

甫ㅣ言死於賊中이면人誰知之리오今日歸来ᄒᆞ야反思之而自惜也ㅣ라○주거가더든누를브터알외리오도리외비루소내ᄂᆞᆯ히ᄒᆞ노라

猶瞻太白雪喜遇武功天

太白山은在鳳翔ᄒᆞ고武功縣은屬京兆ᄒᆞ니此ᄂᆞᆫ喜近天子之所也ㅣ라○오히려太白山ㅅ누늘보

노니 武功縣入ᄒᆞᄂᆞᆯ 影靜千官裏心蘇七校

ᄒᆞᆯ ᄆᆞᆺ보믈 깃노라

前 七校ᄂᆞᆫ 中壘와 屯騎와 步兵과 越騎와 長水와 射聲과 虎賁매라 言閒道之來예 危不自保ᄒᆞ야 心若死灰러니 今到天子之所則影始靜而心得蘇也ㅣ라 ○그르메ᄂᆞᆫ 千官入소개와 安靜ᄒᆞ고 ᄆᆞᅀᆞᄆᆞᆫ 닐굽校尉ᄋᆞᆯ 일리ᄭᅵ요라

今朝漢社稷新數中興年 此ᄂᆞᆫ 借漢中興ᄒᆞ야 以美肅宗ᄒᆞ니 言今自中興之年而始計曆數之長也ㅣ라 ○今朝漢人社稷을 다시 興起ᄒᆞ산 ᄒᆡ브터 새려 혜요리라

收京三首

仙仗離丹極妖星照玉除 妖星은 卽彗孛이라 此ᄂᆞᆫ 言賊이 陷

京也ㅣ라○仙仗이冊極을여희시니妖怪ᄅᆞ왼벼리王除예비취도다復爲下

殿走不可好樓居 下殿走ᄂᆞᆫ避亂也ㅣ라封禪書에仙人이好樓居ㅣ라ᄒᆞ、니此ᄂᆞᆫ比天子也ㅣ라○모로매殿에ᄂᆞ려ᄃᆞ롤디라好ᄒᆞᆫ樓에사ᄅᆞ샤미可티아니ᄒᆞ니라

暫屈汾陽駕聊飛燕將書 莊子애堯ㅣ往見四子於汾水之陽이라ᄒᆞ니此ᄂᆞᆫ比幸蜀ᄒᆞ다燕將書ᄂᆞᆫ見四卷漁陽詩註ᄒᆞ니此ᄂᆞᆫ比賊之不勞平也ㅣ라○잢간汾陽애車駕ᄅᆞᆯ구펴가시고잢간燕入將軍의게글워ᄅᆞᆯᄂᆞᆯ여보내시니라

依然七廟略更與萬方初 兵謀ᄅᆞᆯ謂之廟略온盖謀於七廟之中也ㅣ니라此ᄂᆞᆫ言用廟略ᄒᆞ야興復而與民更始也ㅣ라○七廟앳謀略이

依然ᄒᆞ니다시萬方으로다
몯ᄒᆞ야처엄사ᄆᆞ리로다

生意甘衰白天涯正寂寥 사렛ᄂᆞᆫᄠᅳ데ᄂᆞᆯ거셰요믈둘히너기노니하ᄂᆞᆳᄀᆞᅀᆡ와히괴외히잇노라 正

忽聞哀痛詔又下聖明朝 至德二載十二月에下制大赦ᄒᆞ니此ㅣ即下哀痛之詔ㅣ라○忽然히드로니슬허ᄋᆞᆯ위ᄒᆞ시ᄂᆞᆫ詔書ㅣ聖明朝애任ᄂᆞ리도다

羽翼懷商老文思憶帝堯 裵冕等의輔肅宗이循四皓의輔太子ㅣ오玄宗의傳授ㅣ循堯의授舜이라書堯典에欽明文思ㅣ라ᄒᆞ다○羽翼으란商山人ᄂᆞᆯ그닐ᄉᆞ랑ᄒᆞ고文思란帝堯ᄅᆞᆯ思憶ᄒᆞ노라

叨逢罪己日霑洒望青霄 今見肅宗人下詔責己ᄒᆞ

샤能自奮厲ᄒᆞ고甫ㅣ仰望盛治也ㅣ라○모믈허믈ᄒᆞ시ᄂᆞᆫ나ᄅᆞᆯ叨濫히맛니셔늘ᄲᅥ려하ᄂᆞᄅᆞᆯᄇᆞ라노라

汗馬收宮闕春城鏟賊壕 言諸將이平賊而收復京師也ㅣ라○ᄆᆞᄅᆞᆯᄯᆞᆷ내야宮闕을收復ᄒᆞ고봆城에盜賊의城壕ᄅᆞᆯ갓가ᄇᆞ리도다 賞應歌

杕杜歸及薦櫻桃 詩杕杜ᄂᆞᆫ勞還役也ㅣ라仲夏애櫻桃ᄅᆞᆯ薦寢廟ᄒᆞᄂᆞ니此ᄂᆞᆫ言賞勞將士而還京都ᄅᆞᆯ當及仲夏時也ㅣ라○賞功ᄒᆞ샤ᄆᆡ당당이杕杜ᄅᆞᆯ브르리로소니도라오샤미ᄉᆞ랏薦ᄒᆞᆯ제글미ᄎᆞ시리로다 雜虜橫戈數

功臣甲第高 雜虜ᄂᆞᆫ回紇吐蕃等이라甲은猶言甲乙次第오第ᄂᆞᆫ宅也ㅣ

니謂第一之宅이라此ᄂᆞᆫ言胡虜ㅣ數亂ᄒᆞ니功臣이立功而取富貴也ㅣ라○雜虜의干戈ㅣ빗ᄀᆞ미ᄌᆞᄌᆞ니有功ᄒᆞᆫ臣下의甲第놉도다

萬方頻送喜無聖躬勞 送喜ᄂᆞᆫ言獻捷也ㅣ라○萬方이ᄌᆞ조깃보믈보내ᄂᆞ니아니님금모미ᄀᆞᆺ보신가

收京

復道收京邑兼聞殺犬戎 犬戎은吐蕃이라○任京邑을收復ᄒᆞ다니르ᄂᆞ니犬戎주규믈조쳐듣노라

衣冠却扈從車駕已還宮 却扈從은言前此ᄒᆞ야不扈從也ㅣ라此ᄂᆞᆫ代宗이自陝州로還京也ㅣ니라○衣

冠ᄒᆞᆫ사ᄅᆞ미도ᄅᆞ혀扈從ᄒᆞ니車駕ㅣᄒᆞ마宮中에도라오샷다 克復誠如此扶持在數公 羙郭子儀等의収復京師也ㅣ라○이그려興復ᄒᆞ미진실로이긘ᄒᆞ니扶持호미두어사ᄅᆞ믜게잇도다 莫令回首地慟哭起悲風 回首地ᄂᆞᆫ指京都ᄒᆞ다此ᄂᆞᆫ望不再致亂也ㅣ라○내머리도라보라ᄂᆞᆫ싸ᄒᆞ로ᄒᆞ여셜워우러슬픈ᄇᆞᄅᆞ미닐에ᄒᆞ디마ᄅᆞᆯ디어다

、遣憤 時예回紇이破吐蕃ᄒᆞ야놀贈賚繒帛ᄒᆞ니府藏이空竭이어놀稅百官俸ᄒᆞ야以給之ᄒᆞ니此爲可憤이라

聞道花門將論功未盡歸 時예回紇藥葛羅ㅣ與子儀로擊殺

吐蕃於靈臺西原ᄒᆞ고要賞而未即歸ᄒᆞ니라○니ᄅᆞ거늘드로니花門八將軍이功을

議論ᄒᆞ야付다도라가디아니ᄒᆞ얫도다 **自從収帝里誰復揔戎**

機蜂蠆終懷毒雷霆可震威 時예回紇이恃功陵暴ㅣ어늘

諸將이不復介意故로甫ㅣ欲早加天威ᄒᆞ야以絶止之ᄒᆞ니라○帝里를収復호ᄆᆞᆯ브터

뉘任戎機를자뱃ᄂᆞ니오버리도ᄆᆞᄎᆞ매모디로몯벗ᄂᆞ니雷霆ㅅ威嚴을震動ᄒᆞ미

可ᄒᆞ니라 **莫令鞭血地再濕漢臣衣** 漢書에禁中이非刑人鞭

血之地라ᄒᆞ니鞭血地ᄂᆞᆫ指言禁中也ㅣ니此ᄂᆞᆫ言當防禍亂ᄒᆞ야勿使再嘔京闕이니

라○채텨피나게ᄒᆞᄂᆞᆫ件ᄒᆞ로ᄒᆞ여다시漢臣의오ᄉᆞᆯ저지디마롤디어다

西山三首

夷界荒山頂蕃州積雪邊成都記예西山이冬夏애雪積ᄒᆞᄂᆞ니라○夷狄人ᄋᆞᆫ거츤뫼ㅅ뎡바기오蕃州ᄂᆞᆫ사ᄒᆞᆫ눈ㄱ이로다築城依白帝轉粟上青天言築城西山上ᄒᆞ니其高ㅣ可依於西方白帝而轉粟이如上青天也ㅣ라○城을사白帝예븓고조ᄒᆞᆯ옮겨하ᄂᆞᆯ해올이ᄂᆞ다蜀將分旗鼓羌兵助鎧鋋時예吐蕃이陥松維保三州ᄒᆞᆯ서分禦之也ㅣ니라○蜀入將軍이旗와붚과ᄅᆞᆯ논호고되兵이甲과戈鋋을돕ᄂᆞ다西南背和好殺氣日相纏言吐蕃이背盟好而爲寇也ㅣ라○西南이和好ᄅᆞᆯ背叛

ᄒᆞ니殺氣ㅣ나날 서르얼ᄭᅵᆺ도다

辛苦三城戍長防萬里秋 辛苦ᄅᆞᆫ왼셔城에 셔屯戍호미여기 리萬里ㅅᄀᆞᅀᆞᆯ히因 셔防禦ᄒᆞ놋다

烟塵侵火井雨雪閉松州 火井은蜀ㅅ地名이라○ᄂᆡ와드틀왜火井 에侵逼ᄒᆞ엿고눈비예松州ㅣ다티엿도다

風動將軍幕天寒使者裘 ᄇᆞᄅᆞ미將軍의幕 을뮈우고하ᄂᆞᆯ히 使者의갓오새 서늘ᄒᆞ도다

漫山賊營壘迴首得無憂 뫼 해 ᄀᆞ독ᄒᆞᆫ盜賊의營壘ㅣ로소니머리를 도라ᄇᆞ라고시러곰시름이업스리아

子弟猶深入關城未解圍 子弟ᄂᆞᆫ克兵之人 也ㅣ라○子弟ㅣ

오히려기피드려가ᄂᆞ니關城에蠶崖鐵馬
둘어슈믈헤티디몯ᄒᆞ얏도다
瘦灌口米船稀 蚕崖灌口ᄂᆞᆫ皆西山入隘口地名이라言戰馬ㅣ瘦不可
戰이오米船이連不繼也ㅣ라○蚕崖옌甲
니븐ᄆᆞ리여위오灌口엔ᄡᆞᆯ시른비드므도다
辯士安邊策元戎決勝威 言辯士ㅣ設謀ᄒᆞ며元帥ㅣ決
勝故로終望奏凱也ㅣ니라○말合ᄒᆞᄂᆞᆫ
ᄀᆞ온便安케ᄒᆞᆯ謀策이오큰將軍은이긔요
ᄆᆞᆯ決ᄒᆞᆯ威嚴이로다
今朝烏鵲喜欲報凱歌歸 西都雜記예云
鵲噪而行人이至라ᄒᆞ다凱ᄂᆞᆫ戰勝獻功之歌ㅣ니라○오ᄂᆞᆯ아ᄎᆞᆷ가막가치ᄃᆞᆯ비우루
믄凱歌ᄒᆞ야도라오믈알외오져ᄒᆞᄂᆞᆺ다

丶警急漢書에邊防備警急이라ᄒᆞ다

才名舊楚將妙略擁兵機時예高適이領西川節度使ᄒᆞ다○才名은녯楚앳將軍이로소니微妙ᄒᆞᆫ謀略으로兵機를ᄢᅳ려ᄒᆞ엿도다

玉壘雖傳檄松州會解圍玉壘山이在彭州ᄒᆞ다檄은徵兵書也ㅣ라此ㄴ言吐蕃이雖入寇ᄒᆞ야相傳檄書ᄒᆞ나松州ㄴ會有解圍之日ᄒᆞ리라○玉壘에비록檄書ㅣ傳ᄒᆞ나松州ᄂᆞᆫ모로매둘어슈믈헤티리라

和親知計拙公主漫無歸此ㄴ言朝廷이嘗以金城公主로嫁吐蕃ᄒᆞ야和親ᄒᆞ되卒不免入寇ᄒᆞ니此爲計拙也ㅣ라○和親ᄒᆞ믈헤아리미踈拙ᄒᆞᆫ돌아노니公主ㅣ속절업시도라오디몯

ᄒᆞ놋다 青海今誰得西戎實飽飛 此ᄂᆞᆫ言吐蕃이隔青海ᄒᆞ니如鷹이飽飛而難制也ㅣ라○青海ᄅᆞᆯ이제뉘가졋ᄂᆞ니오西戎이眞實로ᄇᆡ브르여셔ᄂᆞ놋다

、王命 命ᄋᆞᆫ郭子儀ᄒᆞ야禦吐蕃也ㅣ라

漢北豺狼滿巴西道路難 漢北巴西ᄂᆞᆫ吐蕃의入寇之地라○漢ㅅ北녀긘豺狼이ᄀᆞ독ᄒᆞ얏고巴州ㅅ西녀긘길히어렵도다

血埋諸將甲骨斷使臣鞍 時예李之芳等이徃使吐蕃ᄒᆞ야被留不還ᄒᆞ니라○피ᄂᆞᆫ諸將의甲애무텻고ᄲᅧᄂᆞᆫ使臣의기르마애ᄀᆞ것도다

牢落新燒棧蒼

荒舊築壇 半落ᄋᆞᆫ稀疎也ㅣ라 時예 吐蕃이 燒大散關ᄒᆞ다 漢高ㅣ 築壇ᄒᆞ야 拜韓信爲大將ᄒᆞ니 此ᄂᆞᆫ 諷閑廢子儀也ㅣ라 ○ 새려 블브튼 棧道ᄂᆞᆫ 서의ᄒᆞᆫ 녯 고ᄫᆡ ᄉᆞ던 壇場은 아ᄋᆞ라ᄒᆞ도다

深懷喻蜀意慟哭望王官 司馬相如ㅣ 作諭巴蜀檄ᄒᆞ다 時예 巴蜀人이 隔於夷虜ᄒᆞ야 慟哭望王官之來救ㅣ니라 ○ 蜀 알외ᄋᆞᆯ ᄠᅳ들 기피 ᄉᆞ랑ᄒᆞ노니 설워 우러셔 王官을 ᄇᆞ라ᄂᆞ다

征夫

十室幾人在千山空自多 열 지븨 몃 사ᄅᆞ미 잇ᄂᆞ니오 즈ᅀᆞ믄 뫼곳 ᄒᆞᆫ갓 제 하도다

路衢唯見哭城市不聞歌 言民苦於征役

也ㅣ라○긼거리예ᄂᆞᆫ오직우루믈보리오城市옌놀애롤듣디몯ᄒᆞ리로다漂梗無安地銜枚有荷戈 漂梗ᄋᆞᆫ甫ㅣ自諭旅寓ㅣ如梗之漂流也ㅣ라枚ᄂᆞᆫ狀如箸ᄒᆞ니士卒이銜之ᄒᆞ야以止言語ᄒᆞᄂᆞ니라○남기ᄠᅥᄃᆞ니ᄃᆞᆺ호매便安호ᄯᅡ히업스니枚를머굼고干戈를메니잇도다官軍未通蜀吾道竟如何 官軍이蜀을通ᄒᆞ디몯ᄒᆞ얫ᄂᆞ니내의道ᄂᆞᆫᄆᆞᄎᆞ매엇뎨홀고

、有感五首

將帥蒙恩澤兵戈有歲年至今勞聖主何以報皇天 此ᄂᆞᆫ言將帥ㅣ皆蒙恩寵호ᄃᆡ不勉討賊ᄒᆞ야使至尊으로爲憂也ㅣ라

○將帥ㅣ님금恩澤을니브나兵戈ᄂᆞᆫ여러ᄒᆡ잇도다이제니르리聖主롤ᄀᆞᆺ보시게ᄒᆞᄂᆞ니므스그로ᄡᅥ皇天을갑ᄉᆞ올고

白骨新交戰 雲臺舊拓邊

言今戰之地예白骨이暴橫ᄒᆞ니雲臺圖畵ᄂᆞᆫ皆昔日拓邊之臣이라ᄒᆞ니所以深罪今之諸將也ㅣ라○힌ᄲᅧᄂᆞᆫ새려사홈을싯겟ᄉᆞ니雲臺예ᄂᆞᆫ뎨ᄀᆞ올디퇴던사ᄅᆞ미니라

乘槎斷消息 無處覓張騫

此ᄂᆞᆫ用張騫事ᄒᆞ야喩李之芳의使吐蕃不還也ㅣ라○들ᄀᆞᆯᄐᆞᆫ사ᄅᆞ미消息이그ᄎᆞ니張騫을이들ᄯᅡ히업도다

幽薊餘蛇豕 乾坤尚虎狼

此ᄂᆞᆫ言河北이李盡腥也ㅣ라○幽薊예비얌과돋과나맛고乾坤대범과일히왜오히려잇도다

諸侯春不貢

使者日相望此ᄂᆞᆫ言使者ㅣ雖相繼而徃諭ᄒᆞ나藩鎭이不來貢也ㅣ라○諸侯ᄅᆞᆯ히보ᄆᆡ朝貢이ᄇᆡᄒᆞᄂᆞㅣ使者ㅣ나날서ᄅᆞ보라矣다愼勿呑青海

無勞問越裳大君先息戰歸馬華山陽書武成에歸馬于華山之陽이라ᄒᆞ니此ᄂᆞᆫ戒無事於西羌東夷코唯願偃武修文德也ㅣ라○青海人ᄃᆡ글솜血믈삼가말며越裳人ᄃᆡ무룸도잇비말오님그미몬져사호믈그처ᄆᆞᄅᆞᆯ華山陽애보ᄂᆡ올디니라

洛下舟車入天中貢賦均洛陽은天地之中이라四方貢賦에道里均也ㅣ라此ᄂᆞᆫ言朝義既誠而道路ㅣ不阻絶이니라○洛下애비와술위왜드ᄂᆞ

나하ᄂᆞᆫ가온ᄃᆡ貢賦ㅣ오미고ᄅᆞ니라 日聞紅粟腐寒待翠華春此ᄂᆞᆫ言於京師ㅣ매日欲聞富實而民皆望天子之霈澤也ㅣ라○生로블근조히서ᄀᆞ믈ᄃᆞᆮᄂᆞ니치워셔翠華ᄉᆞ보믈기ᄃᆞ리ᄂᆞ니라 莫取金湯固長令宇宙新無恃城池如金湯之固ㅣ오當務德化ᄒᆞ야一新宇宙也ㅣ니라○金湯ᄀᆞ티구두믈取ᄒᆞ디말오기리宇宙로ᄒᆞ여새롭게ᄒᆞᆯ디니라 不過行儉德盜賊本王臣言君能修德이면叛逆이必服이니라○儉ᄒᆞᆫ德을行ᄒᆞ매넘디아니ᄒᆞ니盜賊도本來님금臣下ㅣ니라 丹桂風霜急青梧日夜凋由來強幹地未有

不臣朝 丹桂ㅣ耐風霜ᄒᆞᄂᆞ니喻強幹ᄒᆞ고 青梧ᄂᆞᆫ易凋落이니喻弱枝ᄒᆞ니言幹이強壯則枝ㅣ不能勝ᄒᆞᄂᆞ니猶君強而臣自歸服也ㅣ라○블근桂樹엔ᄇᆞᄅᆞᆷ과서리왜ᄲᆞᄅᆞ고프른머귀ᄂᆞᆫ낫과바ᄆᆡ ᄇᆡ려디ᄂᆞ다本來로옷드미구든ᄯᅡ헨臣服디아니ᄒᆞᆯ朝ㅣ잇디아니ᄒᆞ니라

受鉞親賢往卑宮制詔遙 時예雍王适이為元帥也ㅣ라當時諸將이侈其居第어늘嘗下詔禁止之ᄒᆞ라○鈇鉞을맛뎌親賢이가고집을ᄂᆞᆺ갑게ᄒᆞ라ᄒᆞ시ᄂᆞᆫ詔書를머리ᄒᆞ시놋다

終依古封建豈獨聽簫韶 言當依古制ᄒᆞ야封建同姓ᄒᆞ야以安國家ᄒᆞᆯ디니豈獨聽簫韶之樂ᄒᆞ야宴遊而已리오○ᄆᆞᄎᆞ매녜封建을브터ᄒᆞᆯ디니엇뎨ᄒᆞᆫ갓簫韶를드를ᄯᆞ

루미리오

胡滅人還亂兵殘將自疑 此ᄂᆞᆫ言安史ㅣ旣平ᄒᆞ거늘僕固懷恩及李光弼이以疑而叛沮ᄒᆞ니라○되滅ᄒᆞ니사ᄅᆞ미도ᄅᆞ혀亂ᄒᆞᄂᆞ니兵事ㅣ衰殘ᄒᆞ니將軍이제疑畏ᄒᆞᄂᆞ다

登壇名絶假報主爾何遲 此ᄂᆞᆫ言登壇拜將者ㅣ皆真授而非假節ᄒᆞ니受君恩寵이極矣니報主之効ㅣ爾何以遲오蓋責之也ㅣ라○壇에오ᄅᆞᆫ일후미假借ㅣ업스니님금갑ᄉᆞ오믈네엇뎨더듸리오

領郡輒無色之官皆有詞 時예縉紳이皆重內任故로領郡則無喜色而有推托之詞ᄒᆞᄂᆞ니蓋譏之也ㅣ라○ᄀᆞ올흘거느려든곧비치업고ᄀᆞ올희갈제

기어든다 말ᄉᆞ미 잇도다 顧聞哀痛詔 端拱問瘡痍 此ᄂᆞᆫ祈望
君王之恤民也ㅣ라○슬히셜워ᄒᆞ시ᄂᆞᆫ詔書ㅣ端拱ᄒᆞ야겨샤헐므으닐무르샤믈듣
고져願ᄒᆞ노라

柳司馬至

有使歸三峽 相過問兩京 使臣이三峽에도라오나ᄂᆞᆯ서르디
나오매두서욼이를뭇노라 函關猶出將 渭水更屯兵 時예
吐蕃이入寇ᄒᆞ니라○函關애오히려將帥ㅣ나가고渭水에ᄯᅩ兵馬ㅣ屯聚ᄒᆞ얏도다
設備邯鄲道 和親邏些城 邯鄲縣은蜀河北ᄒᆞ고邏些ᄂᆞᆫ吐蕃

의都城名이라○邯鄲人길히備禦ᄒᆞᆫ몯排設ᄒᆞ고邏些城에和親ᄒᆞ얏다幽燕惟鳥去商洛少人行言人亂而道路ㅣ不通也ㅣ라○幽燕엔오직새ᄲᅮᆫ가고商洛앤사ᄅᆞᆷᄃᆞᆫ니리저기도다衰謝身何補蕭條病轉嬰늘구메내모미므스이ᄅᆞᆯ補助ᄒᆞ리오蕭條ᄒᆞ매病이ᄀᆞ장ᄇᆞᄅᆞ러셰라霜天到宮闕戀主寸心明此ᄂᆞᆫ言霜天에寒回ᄒᆞ야直到宮闕이니라○서리오ᄂᆞᆫ하ᄂᆞᆯ히宮闕에니르렛ᄂᆞ니님금思戀ᄒᆞᄋᆞᆸ논조고맛ᄆᆞᄋᆞ미ᄇᆞᆯ고라

卽事

聞道花門破和親事却非破ᄂᆞᆫ謂破和親也ㅣ라○니ᄅᆞ거늘

드로니花門이破ᄒᆞ니和親ᄒᆞ던이리도로혀외오ᄃᆞ외도다 **人憐漢公主生得渡河歸** 肅宗이寧國公主로嫁回紇이러니後에以無子로還來ᄒᆞ다○사ᄅᆞ미漢人公主의사라시리곰河ᄅᆞᆯ건너오ᄆᆞᆯ슬ᄂᆞ다 **愁思抛雲髻腰支勝寶衣** 勝寶衣ᄂᆞᆫ사ᄅᆞ미여위면오시어위ᄂᆞ니言公主ㅣ愁恨而不梳粧也ㅣ라○시름ᄃᆞ왼ᄠᅳ드로구룸곤ᄒᆞᆫ髻鬟ᄋᆞᆯᄇᆞ리ᄂᆞ니허리와四支예貴ᄒᆞᆫ오시어위도다 **羣凶猶索戰回首意多違** 羣凶이오히려사호ᄆᆞᆯ求ᄒᆞᄂᆞ니머리ᄅᆞᆯ도라ᄇᆞ라온ᄃᆞᆫ처엄ᄠᅳᆮ과해어긔도다

歷歷開元事分明在眼前 此ᄂᆞᆫ言開元太平之事ㅣ라○번득번득이開元ㅅ時節ㅅ이리눈알ᄑᆡ分明히잇도다

無端盜賊起忽已歲時遷 此ᄂᆞᆫ言安史之亂이起而歲月이遷遠也ㅣ라○근업시盜賊이니러나니忽然히ᄒᆞ마歲時ㅣ올맷도다

巫峽西江外秦城北斗邊

爲郎從白首臥病數秋天 上二句ᄂᆞᆫ甫ㅣ在巫峽而懷長安也ㅣ라○巫峽은西ㅅ녁ᄀᆞᄅᆞᇝ밧기오秦城은北斗ㅅᄀᆞ이니라郎ᄃᆞ외야쇼매머리셰요믈므던히너기노니病ᄒᆞ야누우미두어ᄀᆞᅀᆞᆯ히어다

洛陽

洛陽昔陷沒胡馬犯潼關洛陽이녜盜賊의게뻐디니되ᄆᆞ리潼關을侵犯ᄒᆞ니라

天子初愁思都人慘別顔都人이奔走避亂而恨相別也ㅣ라○天子ㅣ처엄의시름ᄃᆞ왼ᄠᅳ들ᄒᆞ시고都邑ㅅ사ᄅᆞᄆᆞᆫ여희ᄂᆞᆫᄂᆞᄎᆞᆯ슬ᄒᆡᄒᆞ니라

清笳去宮闕翠蓋出關山此ᄂᆞᆫ言玄宗이幸蜀이라○ᄆᆞᆯᄀᆞᆫ픐뎌부러宮闕을ᄇᆞ리시고ᄑᆞᄅᆞᆫ蓋ㅣ關山ᄋᆞ로나가시니라

故老

仍流涕龍髯幸再攀黃帝ㅣ鑄鼎荊山下ᄒᆞ고乘龍上昇이어늘群臣ㅣ攀龍髯ᄒᆞ니此ᄂᆞᆫ喩玄宗이還京師ㅣ어시ᄂᆞᆯ士庶ㅣ涕泣奉迎也ㅣ라○녯ᄂᆞᆯ그니돌히지즈로눈므를흘려셔龍의입거우즐幸ᄒᆞ다시ᄃᆞ위자브니라

、驪山

驪山絕望幸花蕚罷登臨此篇은為明皇의外避ᄒᆞ야追記當時事ᄒᆞ니라○驪山애行幸ᄇᆞ라ᄋᆞ오미끈고花蕚樓에登臨ᄒᆞ샤미ᄆᆞᆺ도다

地下無朝燭人間有賜金凡早朝애秉燭ᄒᆞᄂᆞ니今地下애無朝會之燭이오但生時所賜金이留在人間也ㅣ라○ᄯᅡ아랜朝會ᄒᆞᆯ燭이업고人間앤주샨金이잇도다

鼎湖龍去遠銀海鴈飛深鼎湖ᄂᆞᆫ見上註ᄒᆞ니라秦始皇을葬驪山ᄒᆞᆯᄃᆡ水銀으로為江海ᄒᆞ고黃金으로為鳧鴈ᄒᆞ니此ᄂᆞᆫ皆比葬明皇ᄒᆞᆫ다○鼎湖애龍의나가미오라니銀으로혼바ᄅᆞ래그려긔ᄂᆞ로미깁도다

萬歲

蓬萊日長懸舊羽林此ᄂᆞᆫ言明皇이已遠ᄒᆞ니唯有舊時之日이照蓬萊羽林而已라○萬歲예蓬萊殿엣ᄒᆡ기리녯羽林에ᄃᆞᆯ엿도다

、提封

提封漢天下萬國尚同心提封은提擧封疆之內ᄒᆞ야摠計其數也ㅣ라同心은吐蕃이雖亂ᄒᆞ나海內皆歸心朝廷이니라○封疆人안ᄒᆞᆯ드러보건댄다漢入天下ㅣ니萬國이오히려ᄒᆞᆫᄆᆞᅀᆞᆷ이ᄒᆞᆫ가지로다借問懸車守何如儉德臨懸車東馬ᄂᆞᆫ言至險也ㅣ니守之以險이莫若臨之以儉德이니라○묻노라懸車ᄒᆞ야守禦호미儉ᄒᆞᆫ德으로臨ᄒᆞ욤과엇더ᄒᆞ니오時徵俊乂

入莫慮犬羊侵 言當徵賢自輔ㅣ오勿畏戎狄之侵이니라○時로俊乂로블러드리고犬羊의侵犯으란혜아리디마롤디니라 頻戒兵猶火恩加四海深 左傳에兵猶火也ㅣ니弗戢이면將自焚이라ᄒᆞ니言用兵이莫若以恩也ㅣ라○頻ᄒᆞᆫ둔兵事ㅣ블곤ᄒᆞ요믈警戒ᄒᆞ샤恩惠를四海예더으샤믈기듸ᄒᆞᄉᆞ셔

喜聞盜賊蕃寇揔退口號五首

蕭關隴水入官軍青海黃河卷塞雲 蕭關隴水ㅣ皆秦地ㅣ니言官軍이入居而吐蕃이退散也ㅣ라青海ㅣ即吐蕃之地라○蕭關과隴水예

官軍이드니青海와黃河애北極轉愁龍虎

ᄆᆞᆺ구루믈거더ᄇᆞ리도다

氣西戎休縱犬羊群范增이曰吾ㅣ使人望漢王氣ᄒᆞ니皆爲龍虎

ᄒᆞ야成五色이라ᄒᆞ다北極은猶言北闕이

니言中國이氣盛ᄒᆞ니胡人이愁恐也ㅣ라

○北極에龍虎ㅅ氣運을ᄆᆞ장시름ᄒᆞᄂᆞ니

西戎은犬羊의무리放縱ᄒᆞ디마ᄅᆞᆯ디어다

贊普多敎使入秦數通和好止烟塵贊普ᄂᆞᆫ吐蕃君

長이니라此ᄂᆞᆫ說當時事ᄒᆞ니라○贊普ㅣ

해使者를ᄒᆞ여秦에드려보내ᄂᆞ니ᄌᆞ조和

好ᄒᆞ믈通ᄒᆞ야煙塵을그치ᄂᆞ다朝廷忽用哥舒將殺伐虛

悲公主親開元末애吐蕃이來告金城公主之薨ᄒᆞ고因請和ᄒᆞ야ᄂᆞᆯ玄宗이

不許而使翰伐之ᄒᆞ니此ᄂᆞᆫ說舊事ᄒᆞ니라○朝廷이忽然히哥舒翰將軍을ᄡᅳ시니殺伐ᄒᆞ야公主ㅅ아ᄋᆞ몰속절업시슬케ᄒᆞ니라

崆峒西極過崑崙駞馬由來擁國門 此ᄂᆞᆫ大言舊時從代之遠也ㅣ라○崆峒西海으로崑崙山애디내히駱駞와몰괘奔來로나랏門에ᄡᅳ려오더니라

逆氣數年吹路斷蕃人聞道漸星奔 거슯즌氣運이두어ᄒᆡ를길흘부러그쳇더니나ᄅᆞ거늘드로니蕃人이漸漸별돋ᄃᆞᆺᄒᆞ솟다

勃律天西采玉河堅昆碧盌最來多 勃律은西蕃國

名이오来玉河ㅣ在于闐國ᄒᆞ니多產玉ᄒᆞ
ᄂᆞ니라堅昆國은在葱嶺北ᄒᆞ니出碧盌ᄒᆞᄂᆞ
ᄂᆞ니라○勃律天ㅅ西ㅅ녀来玉河와舊隨
堅昆國엣碧盌이안직오미하더니라

漢使千堆寶少答胡王萬匹羅 此ㅣ言舊日에千堆寶로
隨漢使入貢이어든中國이萬匹羅로少答
之也ㅣ라○녜漢ㅅ使者ᄅᆞᆯ조차조ᄆᆞᆫ무뎟
珍寶ᄅᆞᆯ가져오나든萬匹羅로되
님그믈져기酬答ᄒᆞ더시니라

今春喜氣滿乾坤南北東西拱至尊 옰보기깃븐氣
運이乾坤애ᄀᆞ득ᄒᆞ니南北
東西ㅣ님그믈拱戴ᄒᆞᄉᆞᆸ다

大曆三年調玉燭玄元皇帝聖雲孫 大曆은代宗年號ㅣ라四時和ㅣ爲玉燭이라

雲孫은輕遠이如浮雲이니唐이老子로爲聖祖ᄒᆞ야封玄元皇帝故로謂代宗爲聖雲孫이라○大曆三年에王燭이調和ᄒᆞ니玄元皇帝人聖德ᄒᆞ신雲孫이샷다

承聞河北諸道節度入朝歡喜口號絶句十二首

祿山作逆降天誅更有思明亦已無 祿山이亂逆ᄒᆞ거늘하ᄂᆞᆯ히주규믈ᄂᆞ리오시니다시思明이잇더니ᄯᅩᄒᆞ마리업도다

洶洶人寰猶不定時時戰鬪欲何須 洶洶은水聲이니喻亂也ㅣ라此ᄂᆞᆫ言時예尙有叛者也ㅣ니라○어즈러이人寰이오히려安定티아니ᄒᆞ니時時예

사호ᄆᆞᆫ므슷이ᄅᆞᆯ
엇고져ᄒᆞᄂᆞ뇨

社稷蒼生計必安蠻夷雜種錯相干 錯相干은祿山及吐蕃이相繼爲亂也ㅣ라○社稷과蒼生의혜아료ᄆᆞᆫ반ᄃᆞ기便安코져ᄒᆞᄂᆞ니蠻夷ㅣ여러種類ㅣ섯거서르干犯ᄒᆞᄂᆞ니라

周宣漢武今王是孝子忠臣後代者 周宣은中興ᄒᆞ고漢武ᄂᆞᆫ除暴亂ᄒᆞ니喩代宗ᄒᆞ다下白ᄂᆞᆫ以忠孝로期望諸節度ᄒᆞ니라○周宣王과漢武帝ᄂᆞᆫ이젯님그미이긔시니孝子와忠臣오後代예셔보리라

喧喧道路多謌謠河北將軍盡入朝 길헤셔숫이놀

애브르리하니河北엣將軍이다入朝ᄒᆞ놋다始是乾坤王室正却
教江漢客魂銷此ᄂᆞᆫ甫ㅣ因喜節度이入朝而自傷流落未還朝也ㅣ라
○비르수이乾坤애王室이正ᄒᆞ도소니도ᄅᆞ혀江漢앳客의넉스로ᄒᆞ여솔에ᄒᆞᄂᆞ다
不道諸公無表來茫然庶事遣人猜言凡朝廷措置
之事ㅣ使諸鎭으로爲之猜疑也ㅣ라○諸公의表ㅣ오디아니호ᄆᆞᆯ니ᄅᆞ디마몰디니
茫然ᄒᆞᆫ여러가짓이리사ᄅᆞᄆᆞ로ᄒᆞ여몰맛게ᄒᆞᄂᆞ다擁兵相學干戈
銳使者徒勞萬里迴吐蕃之亂애諸道節度ㅣ無一人이救援京師
ㅣ어늘朝廷이遣使敦諭ᄒᆞ되竟不至ᄒᆞ니라○兵馬ᄅᆞᆯᄢᅳ려가져서干戈ㅣᄂᆞᆯ카오몰

서르비호ᄂᆞ니使者ㅣᄒᆞᆫ갓
꼿비萬里예셔도라오ᄂᆞ다

鳴玉鏘金盡正臣修文偃武不無人鳴玉鏘金은言
節度之貴ᄒᆞ고又以修文偃武로望於諸節
度ᄒᆞ니라○玉을울이며金을울이ᄂᆞ닌다
正ᄒᆞᆫ臣下ㅣ니文德을닷고武事를
偃息게홀사ᄅᆞ미업다아니ᄒᆞ니라

興王會靜妖氛氣聖壽宜過一萬春興起ᄒᆞ시ᄂᆞᆫ님
그믄모로매妖
氛ㅅ氣運을업게ᄒᆞ시리니님금목수
믄一萬보믈디내샤미맛당ᄒᆞ시니라

英雄見事若通神聖哲爲心小一身若通神
은言見
天下之事勢而入朝也ㅣ라小一身은不役
天下ᄒᆞ야以自奉也ㅣ라○英雄의이를보

미通神ᄒᆞᆫᄃᆞᆺᄒᆞ니聖哲ㅅᄆᆞᄋᆞᆷᄒᆞᆫ
샤믄ᄒᆞᆫ모ᄅᆞᆯ조고매ᄒᆞ시ᄂᆞ니라

燕趙休矜出佳麗宮闈不擬選才人

燕趙之地예多佳
人ᄒᆞ니라才人은
宮中女官號ㅣ라此ㅣ甫ㅣ喜節度의ㅅ朝
ᄒᆞᄃᆡ却恐其來獻女色故로預以爲戒ᄒᆞ니
라○燕趙ㅣ고온사ᄅᆞᆷ나ᄂᆞ다쟈랑말라宮
闈예才人을골히야드류리라너기디아니
ᄒᆞ시ᄂᆞ
니라

抱病江天白首郎空山樓閣暮春光

病을아
벗ᄂᆞᆫ江
天엣머리센郎이여뷘뫼
樓閣애暮春ㅅ비치로다

衣冠是日朝天子草奏何人入帝鄉

衣冠은指節度ᄒᆞ니라甫
ㅣ嘗爲尚書郎故로以草

奏事로言之ᄒᆞ니라○衣冠ᄒᆞᆫ사ᄅᆞ미이나래天子ᄭᅴ入朝ᄒᆞᄂᆞ니書奏를起草ᄒᆞᄂᆞᆫ어느사ᄅᆞ미帝鄉애드러가ᄂᆞᆫ고

澶漫山東一百州削成如按抱青丘 澶은市連反ᄒᆞ니澶漫은廣漠貌ㅣ라如按은几案이니言平也ㅣ라青丘ᄂᆞᆫ在青州ㅣ라○훤ᄒᆞᆫ山東ㅅ一百ᄀᆞ올히갓가일워按곤ᄒᆞ야青丘ᄅᆞᆯ아낫도다

苞茅重入歸關內王祭還供盡海頭 齊桓公이伐楚曰爾貢苞茅ᄅᆞᆯ不入ᄒᆞ야王祭ᄅᆞᆯ不供이라ᄒᆞ니此ᄂᆞᆫ言山東之州ㅣ皆入貢也ㅣ라○ᄡᅡ린ᄢᅴᄅᆞᆯ다시드려關內예보내ᄂᆞ니님굼祭예도ᄅᆞ혀供進ᄒᆞ미海頭에다ᄒᆞ놋다

東逾遼水北滹沱星象風雲喜色和 星象은景星之類ㅣ라雲은亦慶雲이라○東으로遼水에너므며北녁그로滹沱애니르리星象과風雲괘깃븐비치和調ᄒᆞ도다

紫氣關臨天地闊黃金臺貯俊賢多 紫氣關은函谷關이니周時예尹喜為關吏라望其有紫氣ᄒᆞ니라燕昭王이置千金臺ᄒᆞ야以延天下之士ᄒᆞ니言長安이控臨天下而徵用賢才也ㅣ라○紫氣關은天地어윈ᄃᆡ臨ᄒᆞ야잇고黃金臺옌賢俊을두어해잇도다

漁陽突騎邯鄲兒酒酣並轡金鞭垂 此ㅣ指漁陽之將及邯鄲豪俠之兒ᄒᆞ다○漁陽앳ᄃᆞᆯ이ᄂᆞᆫᄆᆞᆯᄐᆞ니와邯鄲앳아ᄒᆡᄃᆞᆯ히수를醉ᄒᆞ고ᄆᆞᆯ

셕ᄉᆞᆯ골와ᄐᆞ고金채ᄅᆞᆯᄃᆞ리웟도다

意氣卽歸雙闕舞雄豪復遺五陵知 五陵은在長安ᄒᆞ니라須溪云此等이侍功而驕ᄒᆞ야其歸舞闕下애平日五陵豪後이復當避之ᄒᆞ니其憂感恨이皆見於言外니라○意氣로곧大闕에가ᄎᆞᆷ추고雄豪호믈ᄯᅩ五陵ㅅ사ᄅᆞᄆᆞ로ᄒᆡ여알게ᄒᆞᄂᆞ다

李相將軍擁薊門白頭惟有赤心存 時예李懷仙이以檢校侍中으로為幽州節度使ㅣ니라○李相將軍이薊門을ᄢᅧ려가졋ᄂᆞ니센머리예오직赤心ᄲᅮᆫ잇도다

竟能盡說諸侯入知有從來天子尊 ᄆᆞᄎᆞᆷ내能히다諸侯ᄅᆞᆯ달애야入朝ᄒᆞ니從來로天子ㅣ尊ᄒᆞ산고ᄃᆞᆯ아도다

十二年來多戰場天威已息陣堂堂 堂堂은盛也ㅣ라○열두ᄒᆡ오매戰場이하더니하ᄂᆞᆯ威神嚴으로ᄒᆞ마盛ᄒᆞᆫ軍陣을그치시도다

靈漢代中興主功業汾陽異姓王 上句ᄂᆞᆫ美代宗ᄒᆞ고下句ᄂᆞᆫ美郭子儀ᄒᆞ니라○神靈ᄒᆞ샤ᄆᆞᆫ漢代옛다시興起ᄒᆞ신님금이시고功業은汾陽옛姓다ᄅᆞᆫ王이로다

邊塞古詩一十七首

前出塞九首 此ᄂᆞᆫ代邊士之作이니下篇이同ᄒᆞ니라

戚戚去故里悠悠赴交河 슬피녜사던ᄆᆞ올ᄒᆞᆯᄇᆞ리고머리交

河로가노라

公家有程期亾命嬰禍羅 程은限이오期는會也ㅣ라命은名也ㅣ니言赴從이有期限ᄒᆞ니脫其名籍而逃亾ㅣ면禍患이必及이니라○구읫지비期限이잇ᄂᆞ니亾命ᄒᆞ면災禍ㅅ그므레버믈리라

君已富土境開邊一何多 此ᄂᆞᆫ譏國忠之徒ㅣ生事於夷狄ᄒᆞ니라○님그ㅣ미ᄒᆞ마仟히하샤딕ㄲ올여루믈ᄒᆞᆫ크ᄋᆞ티엇뎨해ᄒᆞ시ᄂᆞ뇨

棄絕父母恩吞聲行負戈 父母ㅅ恩惠를그처ᄇᆞ리고소리믈숨기고干戈를메오녀ᄂᆞ라

出門日已遠不受徒旅欺 此ᄂᆞᆫ言從軍이已久而練習故로徒旅ㅣ不能欺也ㅣ라○門의나건디나리ᄒᆞ마머니徒旅의소교믈ᄐᆞ디아니ᄒᆞ노라

骨肉恩豈斷男兒死無時 骨肉의恩惠를어느그처ᄇᆞ리리오 男兒의주구미時日이업스니라

走馬脫轡頭手中挑青絲 青絲ᄂᆞᆫ馬鞚也ㅣ라搴旗ᄂᆞᆫ搴取敵

捷下萬仞岡俯身試搴旗 人之旗니此ᄂᆞᆫ皆言習戰之狀이라○ᄆᆞᆯᄃᆞᆯ여ᄃᆡ굴에ᄅᆞᆯ밧겨소내프른시를ᄐᆡ티고萬仞인뫼ᄲᅮ리예ᄲᆞᆯ리ᄂᆞ리ᄃᆞᆯ여모ᄆᆞᆯ구버旗아ᄋᆞ오ᄆᆞᆯᄒᆞ야보노라

磨刀嗚咽水水赤刃傷手 우러흐르ᄂᆞᆫ므레갈ᄒᆞᆯᄀᆞ다니므리블그니ᄂᆞᆯ히소ᄂᆞᆯ헐우도다

欲輕腸斷聲心緒亂已久 腸斷聲은指水聲ᄒᆞ니言聞水聲의嗚咽而心中이錯亂ᄒᆞ야不覺傷手也ㅣ라○애긋븐소

리를므더니너기고져ᄒᆞ간마ᄂᆞᆫ모ᄋᆞ미어즈럽건디ᄒᆞ마오랄시니라

丈夫誓許國憤惋復何有 惋ᄋᆞᆫ驚嘆也ㅣ라言丈夫ㅣ以身許國이라當不憚征役이니復何怨嘆이리오○丈夫ᄂᆞᆫ나라해모ᄆᆞᆯ밧ᄌᆞ오ᄆᆞᆯ盟誓ᄒᆞᆯ디니애와처호ᄆᆞᆯᄯᅩ엇뎨두리오

功名圖麒麟戰骨當速朽 此ᄂᆞᆫ言當立功圖形이오死不足恤이니라○功名일워麒麟閣애그리이고사호맷ᄲᅧᄂᆞᆫ반ᄃᆞ기샐리서글디니라

送徒既有長遠戍亦有身 徒衆을보내요매이믜셔長上이잇고머리가戍邊ᄒᆞ매ᄯᅩ모미잇ᄂᆞ니라

生死向前去不勞吏怒

嗔사나ᄋᆞ주그낫中에알프로向ᄒᆞ야가官吏의怒ᄒᆞ야믜여호믈잇비아니호리라

路逢相識人附書與六親六親은父母兄弟妻子ㅣ니라○길헤셔르아ᄂᆞᆫ사ᄅᆞᆷ을맛보아글워를브텨六親을주노라

哀哉兩決絶不復同苦辛슬프다둘히ᄒᆞᆫ디잇디몯ᄒᆞ야다시辛苦를同티몯ᄒᆞ리로다

迢迢萬餘里領戎赴三軍니리萬餘里예나가ᄾᄅᆞᆯ더브러三軍에다가

軍中異苦樂主將寧盡聞軍中에셜우며즐거우미다ᄅᆞ니主將은어느다드르리오

隔河見胡騎倏忽數百群河水를즈음ᄒᆞ야되ᄆᆞᆯᄐᆞ닐보니믄드기數百무리로다

我始爲奴僕幾

時樹功勳 漢人衛青이 起於奴僕ᄒᆞ니라○ 네 비록 奴僕이ᄃᆞ외엿ᄂᆞ니어ᄂᆞᆫ ᄢᅴ아 功勳을 셰려뇨

挽弓當挽強 用箭當用長 射人先射馬 擒賊先擒王 此四句ᄂᆞᆫ 皆軍中엣 自矜才勇之詞ㅣ니라○ 화ᄅᆞᆯ 혈뎬 반ᄃᆞ기 세니ᄅᆞᆯ 혀며 사ᄅᆞᆯ ᄡᅩᆯ뎬 반ᄃᆞ기 기니ᄅᆞᆯ ᄡᅳ며 사ᄅᆞᄆᆞᆯ ᄡᅩᆯ뎬 몬져 ᄆᆞᄅᆞᆯ 소며 盜賊을 자ᄇᆞᆯ뎬 몬져 王을 자ᄇᆞᆯ디니라

殺人亦有限 立國自有疆 苟能制侵陵 豈在多殺傷 사ᄅᆞᆷ 주규미 ᄯᅩ 그지 이시며 나라ᄒᆞᆯ 셰욤도 스싀로 ᄀᆞᄆᆞ이 잇ᄂᆞ니 眞實로 能히 侵勞ᄒᆞᄂᆞ닐 制馭ᄒᆞᆯ션뎡 엇뎨 해 주규메 이시리오

驅馬天雨雪軍行入高山몰모라가매하ᄂᆞᆯ히눈오ᄂᆞ니軍ㅅ이녀노픈뫼ᄒᆡ로드러가ᄂᆞ다逕危抱寒石指落層氷間길히危險ᄒᆞ야ᄎᆞᆫ돌ᄒᆞᆯ아ᄂᆞ니손가라기층층인어름ᄉᆞ이예ᄲᅧ러디ᄂᆞ다已去漢月遠何時築城還ᄒᆞ마漢ㅅᄃᆞ를ᄇᆞ리고오난디머니언제城ᄉᆞ고도라가려ᄂᆞ浮雲暮南征可望不可攀望雲之南行ᄒᆞ고嘆不得與之還鄕也ㅣ라○ᄠᅳᆫ구루미나조히南녀그로가ᄂᆞ니可히ᄇᆞ라고可히더위잡디몯ᄒᆞ리로다

單于寇我壘百里風塵昏單于ㅣ우리軍壘에入寇ᄒᆞ니百里

예ᄇᆡᄅᆞ맛드트리어므ᄭᅴᆺ도다 雄劍四五動 彼軍爲我奔 楚王

이命鎭鄆ᄒᆞ야鑄雙劍ᄒᆞ니一雌一雄이니라○雄劍가진너ᄃᆞᆺ사ᄅᆞ미뮈여나니뎌軍

이우리게ᄡᅥ奔미ᄃᆞ외도다 虜其名王歸 繫頸授轅門 匈奴

傳에名王ᄋᆞᆫ謂有大名ᄒᆞ야以別諸小王也ㅣ라轅門ᄋᆞᆫ將軍이以車轅ᄋᆞ로為軍門ᄒᆞ

ᄂᆞ니라○그일홈난王ᄋᆞᆯ자바도라와목ᄆᆡ야轅門의맛디고 潛身備行列

一勝何足論 此ᄂᆞᆫ言虜名王ᄒᆞ야授轅門ᄒᆞ고潛身於行列之中ᄒᆞ야不矜

功也ㅣ라○모ᄆᆞᆯ마니ᄒᆞ야行列에ᄀᆞ초아이슈니ᄒᆞᆫ번이긔유믄엇뎨足히議論ᄒᆞ

ᄋᆞ리

從軍十年餘能無分寸功衆人貴苟得欲語羞雷同

雷同은謂雷之發聲에物이無不同時應者故로모릿이리곤호믈雷同이라ᄒᆞᄂᆞ니라○軍을조차ᄃᆞᆫ니건디열히나모ᄂᆞ能히分寸맛功이업스려마ᄂᆞᆫ한사ᄅᆞ미苟且히어두믈貴히너길ᄉᆡ니ᄅᆞ고져ᄒᆞ다가ᄂᆞᆫ곤호ᄆᆞᆯ가붓그리노라

中原有鬬爭況在狄與戎

鬬爭은謂爭功也ㅣ라○中原에도사화ᄃᆞ토미잇ᄂᆞ니ᄒᆞ믈며狄과다ᄆᆞᆺ戎의게이슈미ᄯᆞ녀

丈夫四方志安可辭固窮

言丈夫ㅣ有四方之志ᄒᆞᄂᆞ니當不辭固守固窮ᄒᆞ야立功于四夷也ㅣ니라○丈夫ᄂᆞᆫ四方애ᄠᅳ들뒷ᄂᆞ니엇뎨可히固守固窮호믈말리오

後出塞五首

男兒生世間及壯當封侯 男兒ㅣ世間애나壯ᄒᆞ매미처반ᄃᆞ기諸侯를封ᄒᆡ올디니라 戰伐有功業焉能守舊丘 舊丘ᄂᆞᆫ謂所居鄉里라○사호매功業이잇ᄂᆞᆫ거시니엇뎨能히舊丘를딕ᄒᆞ야시리오 召募赴薊門軍動不可留 블러薊門으로가ᄂᆞ니軍士ㅣ뮐시可히머므렛디몯ᄒᆞ리로다 千金買馬鞍百金裝刀頭 즈믄金으로ᄆᆞᆯ기르마ᄅᆞᆯ사고온金으로갌머리를ᄭᆞ뮤라 閭里送我行親戚擁道周 ᄆᆞ올히서의녀믈보내ᄂᆞ니아ᅀᆞᆷ돌히길ㅅ구븨예ᄢᅳ렛도다 斑白居

上列酒酣進㢠羞머리半만셔니웃行列에居ᄒᆞ얏ᄂᆞ니술을醉코셔러가짓차바놀나오ᄂᆞ다少年別有贈含笑看吳鉤吳鉤는劍名이니少年의所贈也ㅣ라○져믄사ᄅᆞ미各別히주ᇝ거시잇ᄂᆞ니우우믈머거셔吳鉤를보노라

朝進東門營暮上河陽橋아ᄎᆞᄆᆡ東門入營에나아가고나조ᄒᆡ河陽ㅅᄃᆞ리예올아가라落日照大旗馬鳴風蕭蕭蕭蕭ᄂᆞᆫ風聲이라○디ᄂᆞᆫᄒᆡ큰旗예비취엿ᄂᆞ니ᄆᆞ리울오ᄇᆞᄅᆞ미부ᄂᆞᆺ다平沙列萬幕部伍各見招平ᄒᆞᆫ몰애예一萬帳幕이버렛ᄂᆞ니部伍ㅣ제여곰

블로믈뵈ᄂᆞ다 中天懸明月令嚴夜寂寥 하ᄂᆞᆯ가온ᄃᆡᄇᆞᆯᄀᆞᆫᄃᆞ

리ᄃᆞᆯ엿ᄂᆞ니軍令이싁싁ᄒᆞ니바ᄆᆡ괴외ᄒᆞ도다 悲笳數聲動壯士

慘不驕 슬픈픗뎌두어소리뮈니壯士ㅣ슬허驕慢호ᄆᆞᆯ몯ᄒᆞᄂᆞ다 借問

大將誰恐是霍嫖姚 霍去病이爲嫖姚校尉라○뭇노라大將은뉘

고저호ᄃᆞᆫ이霍嫖姚ㅣᆫ가ᄒᆞ노라

古人重守邊今人重高勳 此ᄂᆞᆫ言古人은但保邊疆이러니今

人則邀功生事也ㅣ라○녯사ᄅᆞᄆᆞᆫ邊方保守호ᄆᆞᆯ重히ᄒᆞ야ᄂᆞᆯ이젯사ᄅᆞᄆᆞᆫ功勳노피

호ᄆᆞᆯ重히너기ᄂᆞ다 豈知英雄主出師亘長雲 亘은去聲이니

言連亘之也ㅣ라此ᄂᆞᆫ言不意英雄之主ㅣ
如此驍武也ㅣ니라○英雄ᄒᆞ신님금이軍
師를내야긴구룸서리예니어숟고들어느알리오六合已一家四夷
且孤軍遂使貔虎士奮身勇所聞此ᄂᆞᆫ言六合이一家
故로四夷之軍이孤危ᄒᆞ니此ㅣ貔虎之士
ㅅ所以奮起ᄒᆞ야勇其所聞也ㅣ라○六合
이ᄒᆞ마定지비ᄃᆞ외니四夷ㅣᄯᅩ외ᄅᆞ왼軍
이로다士ㅣ걸시貔虎ㄱ토士로ᄒᆞ여모몰니
르와다든논바애勇
猛히호려ᄒᆞᄂᆞ다拔劍擊大荒日收胡馬
群臣誓開玄冥北持以奉吾君大荒은西邊之地라此ᄂᆞᆫ言或
擊大荒ᄒᆞ며或開玄冥ᄒᆞ야持此功ᄒᆞ야以
獻捷於君也ㅣ라○갈ᄲᅡ혀大荒ᄯᅡ흘ᄭᅢ텨

날로되 몯무믈아ᄋᆞ며 盟誓호ᄃᆡ 玄冥ㅅ 北녀ᄀᆞᆯ헤 더가져 ᄇᆡ곰 우리 님금ᄭᅴ 받ᄌᆞ오려 ᄒᆞᄂᆞ다

獻凱日繼踵 兩蕃靜無虞 兩蕃은 指吐蕃與奚契丹ᄒᆞ다 ○ 凱歌ᄅᆞᆯ 獻호미 날로 자최 니엣ᄂᆞ니 두 蕃이 安靜ᄒᆞ야 혜아ᄅᆞᆯ 이리 업도다

漁陽豪俠地 擊鼓吹笙竽 豪俠은 謂能以力으로 俠助人之急難者ㅣ라 ○ 漁陽ᄋᆞᆫ 豪俠ᄒᆞᆫ ᄯᅡ히니 부플 티며 뎌 피리 부놋다

雲帆轉遼海 粳稻來東吳 此ᄂᆞᆫ 言轉輸東吳之米ᄒᆞ야 以供漁陽祿山之兵也ㅣ라 ○ 구룸 ᄀᆞᄐᆞᆫ ᄇᆡᆺ 돗기 遼海로 올마 오ᄂᆞ니 나ᄡᆞ리 東吳로셔 오놋다

越羅與楚練照耀

輿臺軀 此ᄂᆞᆫ 言賞賜戰士ᄒᆞ니 雖輿臺僕隷之賤도 皆被羨服也ㅣ라 ○ 越엣 羅와 다ᄆᆞᆺ 楚엣 기비 輿臺의 모매 비취옛도다

主將位益崇氣驕凌上都邊人不敢議議者死路衢 此ᄂᆞᆫ 言祿山이 恃功驕傲ㅣ어ᄂᆞᆯ 無敢有議之者也ㅣ라 ○ 主將이 벼스리 더옥 노ᄑᆞ니 氣運이 驕慢ᄒᆞ야 上都를 凌犯ᄒᆞᄂᆞ다 邊方앳 사ᄅᆞ미 구틔여 議論을 ᄒᆞᄂᆞ니 議論ᄒᆞ린 훤ᄒᆞᆫ 긼 거리예 죽ᄂᆞ다

我本良家子出師亦多門 多門은 言出兵이 多端ᄒᆞ야 及於良家也ㅣ라 ○ 내 本來 良家앳 아ᄃᆞ리라니 軍師를 내요미 ᄯᅩ 여러가지로다

將驕益愁思身貴不足論 主將이 驕慢ᄒᆞᆯ시 더옥 ᄠᅳ데 시름ᄒᆞ노니 내 모

믜貴ᄒᆞ요ᄆᆞᆫ足히議論ᄒᆞᆯ디아니니라 躍馬二十年恐辜明主

恩 言久勞從軍而主將이叛逆ᄒᆞ니效忠不終故로却恐辜負君恩也ㅣ니라○몰ᄃᆞᆯ여ᄃᆞ니건디스믈히니明主ㅅ恩惠를져ᄇᆞ릴가젼노라 坐見幽州騎長

驅河洛昏 안자셔幽州人몰ᄐᆞᄂᆞᆯ보니기리모라河洛이어듭게ᄒᆞᄂᆞ다 中

夜間道歸故里但空村 空村은言居民이避亂이라○밤ᄠᆞᆼ에ᄌᆞᄅᆞᆫ길ᄒᆞ로도라오니녯ᄆᆞᄋᆞᆯ히오직뷘村이ᄃᆞ외얫도다 惡名幸脫免窮

老無兒孫 此ㄴ蓋祿山叛時예其將卒이有脫身歸國而祿山이盡殺其妻子者ㅣ니라○모딘일후믄幸혀바사나免ᄒᆞ야니와늘거가兒孫이업스리로다

遣興三首

下馬古戰場四顧但茫然 녯사홈ᄒᆞ던ᄯᅡ해ᄆᆞᄅᆞᆯ브려四方으로도라보니오직茫然ᄒᆞ도다 風悲浮雲去黃葉墜我前 ᄇᆞᄅᆞ미슬픠불오ᄠᅳᆫ구루미가ᄂᆞ니누른니피내알ᄑᆡ벼디ᄂᆞ다 朽骨穴螻蟻又爲蔓草纏 서근ᄲᅧ에가야미구무들워ᄃᆞ렛고ᄯᅩ너춠리얼구미ᄃᆞ외얫도다 故老行歎息今人尚開邊 言故老ㅣ見朽骨而歎傷이어늘今人ᄋᆞᆫ猶好開邊也ㅣ라○녯늘그닌ᄒᆞ녀셔歎息ᄒᆞ거늘이젯사ᄅᆞᄆᆞᆫ오히려ᄀᆞ올열오져ᄒᆞ놋다 漢虜互勝負封疆不常全 中夏과되왜서

르이긔락디락ᄒᆞ니封疆이샹녜오래디몯ᄒᆞ놋다

寄得廉頗將三軍同晏眠 此ᄂᆞᆫ言欲得如廉頗之將ᄒᆞ야唯務安邊而與三軍으로晏眠相安也ㅣ라○엇뎨廉頗ᄀᆞᆮᄒᆞᆫ將帥ᄅᆞᆯ어더三軍이ᄒᆞᆫ가지로便安히ᄌᆞ올녀뇨

高秋登寒山南望馬邑州 馬邑은屬秦州ᄒᆞ니라○高秋에치운뫼해올아南녀그로馬邑州ᄅᆞᆯ보라노라

降虜東擊胡壯健盡不留 此ᄂᆞᆫ言回紇이助順ᄒᆞ야討慶緖也ㅣ라○降服ᄒᆞᆫ되東녀그로되ᄅᆞᆯ티니壯健ᄒᆞᆫ사ᄅᆞ미다머므렛디아니ᄒᆞᄂᆞ다

穹廬牢落上有行雲愁 穹廬ᄂᆞᆫ胡人入氈帳이니其形이穹隆如屋也ㅣ라牢落은空寂皃ㅣ라○穹廬ㅣ

아ᄋᆞ라히牢落ᄒᆞ니우희잇ᄂᆞᆫ녀ᄂᆞᆫ구루미시름ᄃᆞ외도다 老弱哭道路

願聞甲兵休 늘그니와져므니괘길헤우러셔甲兵ᄡᅳ디마로ᄆᆞᆯ듣고져願ᄒᆞᄂᆞ다

鄴中事反覆死人積如丘 言官軍이圍慶緖於鄴城而敗散也ㅣ라○鄴中엣이리드위티니주근사ᄅᆞ미두듥ᄀᆞ티사햇도다 諸將

已茅土載驅誰與謀 言諸將이已各富貴ᄒᆞ니與誰로共謀國事ㅣ리오○諸將이ᄒᆞ마分茅胙土ᄒᆞ니ᄆᆞᆯ모라가눌와다ᄆᆞᆺ佪ᄒᆞ리오

豐年孰云遲甘澤不在早 가ᄋᆞ면ᄒᆡᄅᆞᆯ뉘닐오ᄃᆡ더듸다ᄒᆞᄂᆞ뇨죠ᄒᆞᆫ비오미일우메잇디아니ᄒᆞ니라 耕田秋雨足禾黍已映

道春苗九月交顔色同日老 此ᄂᆞᆫ言農人之耕이雖有春秋早晩之異나然得所養而成熟則一이니以興衡門之士ㅣ一朝애遇時立功則無先後之異ᄒᆞ니라○받가로매ᄆᆞᆯ비해오니禾黍ㅣᄒᆞ마길헤비취ᄂᆞ니보믜심근禾苗ㅣ九月ᄉᆞ이예비치ᄆᆞᆯ와것과ᄒᆞᆫ날늙ᄂᆞ니라

勸汝衡門士勿悲尚枯槁時來展材力先後無醜好 너희衡門엣士더브러勸ᄒᆞ노니오히려이우러이슈믈슬티말라時節이오나든材力을펴면몬져와後왜더러우며됴호미업스니라

但訝鹿皮翁忘機對芳草 鹿皮翁은甫ㅣ自比ᄒᆞ다○오직사ᄉᆞ믜갓옷니븐한아비ᄂᆞᆫ機心을ᄂᆞᆺ고곤다온프를相對ᄒᆞ야

이쇼믈疑心ᄒᆞ노라

將帥 古詩四首 律詩六首

久雨期王將軍不至 名은承後이라

天雨蕭蕭滯茅屋空山無以慰幽獨 하ᄂᆞᆳ비蕭蕭히새지븨오래오니뷘뫼해幽獨히이쇼믈뻐곰慰勞ᄒᆞᆯ주리업도다 銳頭將軍來何遲令我心中苦不足 秦人白起ㅣ頭小而銳ᄒᆞ니比王將軍ᄒᆞ니라○머리셜론ᄒᆞᆫ將軍은오미엇뎨더듸ᄂᆞ내心中으로ᄒᆞ여곰심히快足디아니케ᄒᆞᄂᆞ다 數看黃霧亂玄雲時聽嚴風折喬木

比與下聯은皆說久雨時事ᄒᆞ다○누른雲霧ㅣ거믄구루메어즈러우믈ᄌᆞ조보리로소나치운ᄇᆞᄅᆞ매노ᄅᆞᆫ남기것거쥬믈時로듯노라 泉源泠泠雜猿狖

泥濘漠漠飢鴻鵠 믌출히ᄆᆞᆯᄀᆞ니짓나븨소리섯겻고즌ᄒᆞᆯ기ᄀᆞ려시니鴻鵠이주려ᄒᆞ놋다

歲暮窮陰耿未已 人生會面難再得 耿은心有所存ᄒᆞ야不能忘之貌ㅣ라○歲暮ㅅ窮陰에耿耿호믈마디몯ᄒᆞ노니人生애ᄂᆞᆺ마조보믈다시어두미어렵도다

憶爾腰下鐵絲箭 射殺林中雪色鹿 此下三聯은言將軍射獵之能ᄒᆞ니라○네허리아랫鐵絲箭으로수픐가온ᄃᆡᆺ눈빗ᄀᆞᄐᆞᆫ사ᄉᆞᄆᆞᆯ소아주기던이ᄅᆞᆯᄉᆞ랑ᄒᆞ노라 前者坐

皮因問毛知子歷險人馬勞 아래 가치 안자셔 因ᄒᆞ야 터리ᄅᆞᆯ 묻고 네의 險ᄒᆞᆫ ᄃᆡ 디나가 사ᄅᆞᆷ과 ᄆᆞᆯ와ᄅᆞᆯ 잇비호ᄆᆞᆯ 아로라 異獸如飛星宿落應弦不礙蒼山高 宿은 思救切ᄒᆞ니 列星也ㅣ라 應弦은 射鹿이 應弦而倒也ㅣ라 ○ 奇異ᄒᆞᆫ 즘ᄉᆡᆼ이 ᄂᆞᄂᆞᆫ ᄃᆞᆺᄒᆞᆫ 거시 별 ᄢᅥ러디ᄃᆞᆺᄒᆞ니 시우레 마초 업더디니 프른 뫼히 노포미 ᄀᆞ리오디 몯ᄒᆞ도다 安得突騎只五千崒然眉骨皆爾曹走平亂世相催促一豁明主正鬱陶 此ᄂᆞᆫ 言欲得如王將軍之勇士ᄒᆞ야 使平亂賊ᄒᆞ야 以解明主ㅅ 鬱陶ㅣ 不得伸之氣也ㅣ니라 ○ 엇뎨 突騎ㅣ 오직 五千사ᄅᆞ미 노ᄑᆞᆫ 眉骨이 다 네 ᄆᆞᆯ ᄐᆞ닐 어더

돌여가어즈러운世를平히와서르뵈아ᄒᆞᆫ번ᄇᆞᆯ근남ᄀᆞᆫ正히답답ᄒᆞ신ᄆᆞᄋᆞᄆᆞᆯ훤케ᄒᆞ노려

憶昔范增碎玉斗未使吳兵著白袍 漢入高祖ㅣ與項羽로會鴻門이어늘范增이勸羽擊高祖ㅣ러니張良이獻玉斗於增ᄒᆞᆫ대增이怒擊碎之ᄒᆞ니라侯景이令東吳兵으로著白袍ᄒᆞ야自爲營陣ᄒᆞ니言欲如范增而使賊으로不得爲亂也ㅣ라○ᄉᆞ랑ᄒᆞ논뎌范增이玉마ᄅᆞᆯᄇᆞ려ᄇᆞ리니吳國人兵馬로ᄒᆞ여흰오ᄉᆞᆯ닙디몯게ᄒᆞᆯ더니라

昏昏閶闔閉氣祲十月荊南雷怒號 閶闔은宮門이라氣祲은妖氣라時예賊이寇京師ᄒᆞ니라十月而雷ᄂᆞᆫ變異也ㅣ라○어두이두기閶闔애妖怪ᄅᆞ왼氣運이다티엣ᄂᆞ니十月에荊州入南녀

긔셔 울에 怒ᄒᆞ야 우르ᄂᆞ다

寄贈王十將軍承俊

將軍膽氣雄 臂懸兩角弓 將軍의 膽氣ㅣ 雄壯ᄒᆞ니 ᄇᆞᆯᄒᆡ 두 ᄲᅳᆯ화ᄅᆞᆯ ᄃᆞ랫도다 纏結靑驄馬 出入錦城中 三ᄅᆞᆫ 驄이 ᄆᆞᄅᆞᆯ 얽믜이야 타 錦城ㅅ 가온ᄃᆡ 드나ᄃᆞᄂᆞ다 時危未受鉞 勢屈難爲功 未受鉞은 言未得爲大將이라 ○時節이 바ᄃᆞ라온 제 鈇鉞을 受티 몯ᄒᆞ니 勢ㅣ 屈ᄒᆞ야 功 일우미 어렵도다 賓客滿堂上 何人高義同 소니 堂上애 ᄀᆞᄃᆞ기 잇ᄂᆞ니 어느 사ᄅᆞ미 네 노ᄑᆞᆫ 義와 ᄀᆞᆮᄒᆞ니오

魏將軍歌

將軍昔著從事衫鐵馬馳突重兩銜 從事ᄂᆞᆫ幕官也ㅣ라戰急則馬用雙銜勒ᄒᆞᄂᆞ니라○將軍이녜從事ㅅ오ᄉᆞᆯ니브니甲니븐ᄆᆞᄅᆞᆯ돌이니馬銜이두ᄇᆡ리로다

被堅執銳略西極崑崙月窟東嶄巖 月窟이在崑崙山上ᄒᆞ니嶄巖은高貌ㅣ라○구든甲닙고ᄂᆞᆯ카온兵器를자바西極을티니崑崙月窟이東녀긔노ᄑᆞᆺ더라

君門羽林萬猛士惡若哮虎子所監 言魏侯ㅣ監羽林軍也ㅣ라○님금겨신門엣羽林軍ㅅ一萬勇猛ᄒᆞᆫ士ㅣ모디로미우르ᄂᆞᆫ범ᄀᆞᄐᆞᆫ님그ᄃᆡ監臨ᄒᆞ얏도다

五年起家

列霜戟一日過海收風帆 唐制예上柱國이門立棨戟ᄒᆞᄂᆞ니此ᄂᆞᆫ言魏將軍의顯貴ᄒᆞ다收風帆은言遠征而速捷也ㅣ라○다ᄉᆞᆺ히예가믄을니르와다서리빗ᄀᆞᄐᆞᆫ棨戟을셰니ᄒᆞᄅᆞᆺ날바ᄅᆞᄅᆞᆯ건너가ᄇᆞ람부ᄂᆞᆫ빗돗글아ᄋᆞ니라

平生流輩徒蠢蠢長安少年氣欲盡 言人皆見將軍而猛氣為之盡奪也ㅣ라○平生애ᄒᆞᆫ무렷사ᄅᆞ믄ᄒᆞᆫ갓구믈어리ᄂᆞ니長安앳져믄사ᄅᆞ미氣運이다ᄋᆞᆯ듯ᄒᆞ도다

魏侯骨聳精爽緊華嶽峯尖見秋隼 精爽緊은言精神이峭緊也ㅣ라隼은鷙鳥ㅣ니喻其勇也ㅣ라○魏侯ㅣ氣骨이구즉ᄒᆞ고精神이ᄲᆞᄅᆞ니華嶽ㅅ묏부리예ᄀᆞᄋᆞᆳ매ᄅᆞᆯ보ᄂᆞᆫ듯ᄒᆞ도다

星纏

寶校金盤陁夜騎天駟超天河 寶校盤陁ᄂᆞᆫ 皆馬鞍上粧飾이라 天駟ᄂᆞᆫ 以比御廐馬ᄒᆞ니라 超天河ᄂᆞᆫ 入衛宮中이라 ○ 빗리 얼밋ᄂᆞᆫ 듯ᄒᆞᆫ 寶校와 金盤陁ㅣ로소니 바미 天駟를 타 天河애 건나샤다 攙搶熒惑不敢動犛纛雲旓相蕩摩 攙搶은 妖星이니 比寇亂ᄒᆞ고 熒惑은 火星이니 比强暴ᄒᆞ니 言皆畏將軍之威而不動也ㅣ라 犛纛雲旓ᄂᆞᆫ 皆旗也ㅣ니 言宮衛之嚴ᄒᆞ다 ○ 攙搶熒惑괘 敢히 옴ᄌᆞ기다 몯ᄒᆞᄂᆞ니 犛纛와 雲旓왜 서르 ᄀᆞᆯ옛도다 吾爲子起歌都護酒闌插劍肝膽露鉤陳蒼蒼玄武暮 古樂府에 有丁都護歌ᄒᆞ니 以比魏侯也ㅣ라 鉤陳은 紫宮外營星名이

니天子ㅅ殿에象天ᄒᆞ야亦有鉤陳宮衛ᄒᆞ
니라玄武ᄂᆞᆫ闕名이라此ᄂᆞᆫ言將軍의衛帝
座ᄒᆞ다○내그ᄃᆡ를爲ᄒᆞ야니러都護ㅅ
애를브르노니술ᄆᆞᆺ고픈흔고자시니肝膽을
이나ᄇᆞᆺ도소니鉤陳이蒼蒼
ᄒᆞ고玄武ㅅ나ᄌᆞ히로다 萬歲千秋奉明

主臨江節士安足數 古樂府에臨江王節士
歌애節士ㅣ慷慨ᄒᆞ니
髮上衝冠이라ᄒᆞ니言臨江節士ᄂᆞᆫ不足比
將軍也ㅣ니라○萬歲千秋를본곤님그믈
奉戴ᄒᆞ오오리로소니臨江
ㅅ節士ᄂᆞᆫ엇뎨足히혜리오

戲作花卿歌 名은定이라敖

成都猛將有花卿學語小兒知姓名 成都애勇猛ᄒᆞᆫ

將軍이花卿이잇ᄂᆞ니말비호논져
근아ᄒᆡ니르리姓과일후믈아ᄂᆞ니 用如快

鶻風火生見賊惟多身始輕 ᄡᆞ미ᄲᆞᆯ매ᄀᆞᆮ
고ᄇᆞᄅᆞ매블나
ᄂᆞᆫᄃᆞᆺᄒᆞ니盜賊의오직하ᄆᆞᆯ보고
아모미비르수가ᄇᆡ얍ᄂᆞ니라 綿州副使

著柘黃我卿掃除即日平 柘黃ᄋᆞᆫ天子ㅅ服
色이니言綿州副
使段子璋이叛而僭天子之服也ㅣ라○綿
州ㅅ副使ㅣᄂᆞ른오ᄉᆞᆯ니버늘우리花卿이
ᄡᅳ러ᄇᆞ려即日
에平ᄒᆡ오니라 子璋髑髏血模糊手提擲還

崔大夫 髑髏ᄂᆞᆫ頭骨이라子璋이叛커늘劒
南節度使崔光遠이使花卿으로討
殺之ᄒᆞ니라○子璋의머리ᄲᅧ에피무드
닐소ᄂᆞ로자바崔大夫의알ᄑᆡ더디니라 李

侯童有此節度人道我卿絕世無 東川節度使李奐이 見敗於子璋이러니 及花卿이 誅子璋ᄒᆞ야늘 得還本鎭ᄒᆞ니라○李侯ㅣ 節度를 다시 두니 사ᄅᆞ미 니ᄅᆞ되 우리 花卿이 世예 그처 업다 ᄒᆞᄂᆞ다 旣稱絕世無 ᄒᆞ마 世예 그처 업다 니ᄅᆞ거시니 天子ᄂᆞᆫ

天子何不喚取守京都 엇뎨 블러다가 京都를 守ᄒᆡ이디 아니ᄒᆞ시ᄂᆞ뇨

投贈哥舒開府二十韻 名은 翰이라

今代麒麟閣何人第一功 麒麟閣은 圖畫功臣之閣이라○이 代ㅅ 麒麟閣애 어느 사ᄅᆞ미 第一功고 君王自神武駕馭必英

雄 此ᄂᆞᆫ 泛言玄宗이 有神武之才故로 駕馭 玄英雄之臣也ㅣ라○님그미 자내 神武ᄒᆞ샬ㅣ 駕馭ᄒᆞ야 ᄡᅳ샤ᄆᆞᆯ 반ᄃᆞ기 英雄엣 사ᄅᆞᆷᄋᆞ로 ᄒᆞ시ᄂᆞ니라

開府當朝傑 論兵邁古風 開府ᄂᆞᆫ 當朝앳 豪傑이니 兵事 議論ᄒᆞ몬 古人風에 너므니라

先鋒百勝在 略地兩隅空 先鋒은 謂前鋒이라 略은 取也ㅣ라 兩隅ᄂᆞᆫ 突厥及吐蕃이니 即下句天山青海ㅣ是也ㅣ라○몬져 드러가 사호매 온 번이 긔요미 잇ᄂᆞ니 ᄯᅡ홀 아오매 두 모히 뷔니라

青海無傳箭 天山早掛弓 胡人이 每起兵에 傳箭為號ᄒᆞᄂᆞ니라 或曰守城之法에 更夜ᄒᆞ되 傳箭ᄒᆞ야 以警其驕ᄒᆞᄂᆞ니라 無傳箭은 言無警也ㅣ라 天山은 即祁連也ㅣ라 掛弓은 言不用也ㅣ

ㅣ라○青海엣사를傳호미업고天山샌일화를거렷도다 廉頗仍走敵

魏絳已和戎 廉頗ᄂᆞᆫ趙將이니匈奴ㅣ畏之ᄒᆞ니라魏絳이勸晉侯和戎ᄒᆞ니此ᄂᆞᆫ美輪의能卻敵而不尙邊功也ㅣ라○廉頗ㅣ지즈루彼敵을ᄯᅩᆺ츠ᄃᆞᆺᄒᆞ며魏絳이ᄒᆞ마되롤和親효ᄃᆞᆺ도다 毋惜河隍棄新兼節制通 此ᄂᆞᆫ

言河隍이从棄於賊故로使輪爲節度河西ᄒᆞ야欲收復也ㅣ라○河隍이ᄇᆞ리여슈믈미양앗겨새려節制를兼ᄒᆞ야通히가矣다 智謀無慮想出入冠

諸公 此ᄂᆞᆫ言輪이謀復河隍而爲帝所係想이오出入朝廷에諸公이莫敢比也ㅣ라○智慧와ᄢᅴ예ᄂᆞᆫ님금스치샤미드렷ᄂᆞ니나며드로매諸公의게ᄲᅧ엿도다 曰

月低秦樹乾坤繞漢宮 此ᄂᆞᆫ美收復之功ᄒᆞ、니日月이特低於秦樹ㅣ오乾坤이獨繞於漢宮也ㅣ라○日月이秦樹에ᄂᆞ즉ᄒᆞ엿고乾坤이漢宮에횟돌앗도다

胡人愁逐北宛馬又從東 此ᄂᆞᆫ言胡人이愁翰之攻逐而敗北ᄒᆞ、며宛國이畏翰之威ᄒᆞ、야來獻馬也ㅣ니皆美之之辭ㅣ라○되사ᄅᆞ미ᄧᅩ츄믈시름ᄒᆞᄂᆞ니大宛ㅅᄆᆞ리ᄯᅩ東녁그로조차오ᄂᆞᆺ다

受命邊沙遠歸來御席同 此ᄂᆞᆫ言翰이出則鎭邊遠ᄒᆞ고入則受寵遇也ㅣ라○命을受ᄒᆞ야ᄀᆞ앳몰애멀되가고도라와님금돗긔ᄒᆞᆫᄃᆡ안ᄂᆞᆺ다

軒墀曾寵鶴畋獵舊非熊 衛懿公이好鶴ᄒᆞ니鶴有乘軒者ᄒᆞ니라文王이將出獵에卜之ᄒᆞ니日

所獲이非熊非羆라ᄒᆞ야ᄂᆞᆯ遇太公ᄒᆞ야載來ᄒᆞ니此ᄂᆞᆫ言翰之貴寵이如軒鶴太公也ㅣ라○軒墀예일즉榮寵ᄃᆞ왼鶴이며畋獵ᄒᆞ기예녯곰아닌것ᄀᆞᆮ도다**茅土加**

名數山河誓始終 古者애封諸侯호ᄃᆡ白茅로苞方色之土ᄒᆞ야與之ᄒᆞ더니라名數ᄂᆞᆫ謂爵位輕重也ㅣ라漢高ㅣ封功臣誓曰黃河ㅣ如帶며太山이若礪ㅣ라ᄒᆞ니此ᄂᆞᆫ言封翰西平郡王也ㅣ라○ᄠᅴ와ᄒᆞᆰᄆᆞ로일홈數를더ᄋᆞ시고뫼콰ᄆᆞᄅᆞᄆᆞ로처엄과ᄆᆞᄎᆞ믈盟誓ᄒᆞ시노다

策行遺戰伐契合動昭融 昭融은帝之明睿也ㅣ라此ᄂᆞᆫ言翰이用廟筭之勝ᄒᆞ니無事於交兵이오志同情合ᄒᆞ야足以感動宸衷也ㅣ라○謀策이볼시가ᄒᆞ믈ᄇᆞ리고ᄆᆞᄋᆞ미마ᄌᆞᆯ셔昭融을뮈우노

다

勳業青冥上交親氣槩中 此ᄂᆞᆫ言輸의立功之高ㅣ出乎天上이오其交遊者ㅣ皆在豪英氣槩之中也ㅣ라○功業은하ᄂᆞᆯ우희오사괴ᄂᆞᆫ사ᄅᆞᆷ들흔氣槩ㅅ가온ᄃᆡ잇도다

未為珠履客已見白頭翁 珠履ᄂᆞᆫ春申君의客三千餘人이皆躡珠履ᄒᆞ니此ᄂᆞᆫ言甫ㅣ未得為翰之門客ᄒᆞ고已衰老也ㅣ라○구슬로ᄆᆡᆼᄀᆞ론신시ᄂᆞᆫ客이ᄃᆞ외디몯ᄒᆞ야셔ᄒᆞ마머리셴늘그닐보과라

壯節初題柱生涯獨轉蓬 題柱ᄂᆞᆫ司馬相如ㅣ題昇仙橋柱曰不乘駟馬高車ㅣ면不復過此호리라此ᄂᆞᆫ甫ㅣ年少애雖有相如之壯志ᄒᆞ나晩節에流離ᄒᆞ야如蓬之轉風也ㅣ라○져믄時節에처어믜기동애스다니生涯ㅣᄒᆞ올로다

ᄇᆞᆺ올마ᄃᆞ
나ᄃᆞᆺ호라 幾年春草歇今日暮途窮 春草歇은用王
孫遊兮不歸事ᄒᆞ니言未能歸故鄕也ㅣ라
暮途窮은自歎其衰老也ㅣ라○몃ᄒᆡ를봆
프리이울어니오오ᄂᆞᆳ나
래나죗길히窮迫ᄒᆞ얘라 軍事留孫楚行間
識呂蒙 晉人孫楚ㅣ參鎭東軍事ᄒᆞ고吳人
呂蒙이在行伍ㅣ어늘孫策이拔爲
名將ᄒᆞ니此ᄂᆞᆫ甫ㅣ望翰之擧用也ㅣ라○
軍事애孫楚를머믈우려行伍人ᄉᆞ이예呂
蒙을 아
니라 防身一長劒將欲倚崆峒 崆峒山은
當吐蕃之
境ᄒᆞ니此ᄂᆞᆫ甫ㅣ欲從翰而鎭守也ㅣ라○몸
막ᄌᆞ롤ᄒᆞᆫ긴갈가지고將次入崆峒山을비
겻고져
ᄒᆞ노라

諸將五首 此詩ㅣ前四首ᄂᆞᆫ皆責望諸將之詞ㅣ라

漢朝陵墓對南山胡虜千秋尚入關 此ᄂᆞᆫ言天子之陵과大臣之墓ㅣ相對終南山ᄒᆞ야謂有千秋之固ㅣ러니及胡虜ㅣ入關애不免發掘故로玉魚金盌이已出人間而不能保也ㅣ니借漢ᄒᆞ야言祿山之亂ᄒᆞ니라○漢朝入陵과墓왜南山을對ᄒᆞ얫ᄂᆞ니되ᄃᆞᆯ히千秋에오히려關中에드니라

昨日玉魚蒙葬地早時金盌出人間 玉魚金盌은皆歛葬之物이라○어젯날玉魚ㅣ무든ᄯᅡ해두엇더니일즉金盌이人間애낫도다

見愁汗馬西戎逼曾閃朱旗北斗閑 長安城을號北斗城이라此ᄂᆞᆫ甫ㅣ

言愁見吐蕃之逼亂ᄒᆞ노니汝諸將이昔曾閃動旌旗於北斗城中而享安閑之富貴ᄒᆞ니今何不謹備乎오○몰녀나게타西ㅅ녁되逼近ᄒᆞ야오믈보아시름ᄒᆞ노니일즉朱旗를北斗城에셔뮈워安閑ᄒᆞ더니라

多少材官守涇渭將軍 多少ᄂᆞᆫ不定之數也ㅣ라材官은武臣이니言今材官이屯守涇渭ᄒᆞᄂᆞ니諸將은當念防寇而莫破愁顔以爲樂也ㅣ라○하여져근材官이涇渭예屯守ᄒᆞ얏ᄂᆞ니將軍들흔시름도왼ᄂᆞᆺ촐허러ᄇᆞ리디말라

且莫破愁顔

韓公本意築三城擬絶天驕拔漢旌豈謂盡煩回紇馬翻然遠救朔方兵 此ᄂᆞᆫ言韓國公張仁愿이築河

北三受降城은本欲備蕃虜의侵陵이러니豈知反賴回紇兵ᄒᆞ야以平河北之亂이리오○韓公이세城손本來ㅅ쁘든天驕子의漢人旌旗ᄲᅡ혀믈그츄리라너기더니엇뎨回紇의ᄆᆞᄅᆞᆯ다어즈러이ᄒᆡᆼ뎌아도ᄅᆞ혀朔方兵을머리救ᄒᆞ리라너기리오

胡來不覺潼關隘龍起猶聞晉水清 晉은河北之地라上句ᄂᆞᆫ言哥舒翰이失守潼關險隘而祿山이陷長安ᄒᆞ고下句ᄂᆞᆫ言肅宗이龍飛而河北이復平也ㅣ라○되오매潼關의조보ᄅᆞᆯ아디몯ᄒᆞ리로소니龍이니러나매晉水ㅣ몰고ᄆᆞᆯ오히려드르리로다

獨使至尊憂社稷諸君何以答升平 ᄒᆞ올로至尊으로ᄒᆞ야社稷을시름케ᄒᆞᄂᆞ니諸君은므스그로ᄡᅥ升平호ᄆᆞᆯ報答

ᄒᆞ릐고

洛陽宮殿化為烽休道秦關百二重 百二ᄂᆞᆫ秦地險固ᄒᆞ야二萬人이足當諸侯의百萬人이니此ᄂᆞᆫ言洛陽이既為祿山의所破ᄒᆞ고長安이繼陷ᄒᆞ니秦關險固도亦不足論也ㅣ라○洛陽애宮殿이烽火ㅣᄃᆞ외옛ᄂᆞ니秦關을百二重이라니ᄅᆞ디마ᄅᆞᆯ디로다

滄海未全歸禹貢薊門何處盡堯封 滄海ᄂᆞᆫ指山東ᄒᆞ니言不修貢賦也ㅣ라薊門은指河北ᄒᆞ니言為盜賊의所陷也ㅣ라○滄海ㅣ다禹貢애가디몯ᄒᆞ도소니薊門ㅅ어듸가堯ㅅ封疆을어ᄃᆞ리오

朝廷衮職誰爭補天下軍儲不自供 此ᄂᆞᆫ

言朝廷에乏補袞之臣이오郡國이不供貢賦也ㅣ라○朝廷에셔袞職을뉘ᄃᆞ토와기오리오天下ㅣ軍이바ᄃᆞᆯ거슬제上供ᄒᆞ디아니ᄒᆞᄂᆞ다稍喜臨邊王相國肯銷金甲事春農相國은河南副元帥王縉이라○邊方애監臨ᄒᆞ얫ᄂᆞᆫ王相國의金甲을즐겨ᄉᆞᆯ오ᄇᆞᆫ녀름다이ᄀᆞᆫ일사마호믈져기깃노라回首扶桑銅柱標冥冥氛祲未全銷馬援이征交趾ᄒᆞ고立銅柱ᄒᆞ야爲漢之界ᄒᆞ니라○扶桑과銅柱標ᄅᆞᆯ머리를도라보니어득ᄒᆞᆫ妖怪ᄅᆞ왼氣運이다ᄉᆞ다몯ᄒᆞ얏도다越裳翡翠無消息南海明珠久寂寥周成王時예越裳氏ㅣ獻白雉ᄒᆞ니此ᄂᆞᆫ言東南애妖氛이未息故

로外夷ㅣ久絶貢獻也ㅣ라○越裳人翡翠ㅣ消息이업스니南海엣明珠도오래괴외ᄒᆞ도다

殊錫曾爲大司馬摠戎皆揷侍中貂漢人侍中冠을貂尾로爲飾ᄒᆞ니라此ᄂᆞᆫ責諸將이徒享高爵ᄒᆞ고不忘輸忠也ㅣ라○녀두군달이주샤일즉大司馬ㅣᄃᆞ외여이시며戎事를摠執ᄒᆞ니다侍中의貂를고잣도다

炎風朔雪天王地只在忠良翊聖朝此ᄂᆞᆫ言率土ㅣ莫非王臣이니忠良之臣이翊賛天子ᄒᆞ야以圖收復ᄒᆞ면必來職貢이니라○더운ᄇᆞᄅᆞᆷ부ᄂᆞᆫᄯᅡ콰ᄇᆞᆨ녁눈오ᄂᆞᆫ뒤님굼ᄯᅡ히니오직忠良ᄒᆞᆫ臣下ㅣ聖朝ᄅᆞᆯ도오매잇ᄂᆞ니라

錦江春色逐人來巫峽清秋萬壑哀此篇은專羨嚴

武ᄒᆞ니라甫ㅣ自成都로至巫峽ᄒᆞ야初見
春故로云逐入來라○錦江入뭇비ᄃᆞ사ᄅᆞ
ᄆᆞᆯ조ᄎᆞ오니巫峽入몯ᄀᆞᆫ
ᄆᆞᄋᆞᆯ히萬壑이ᄉᆞᆷ드도다 正憶往時嚴僕射
共迎中使望鄕臺 望鄕臺ᄂᆞᆫ在蜀ᄒᆞ니甫ㅣ
追思隨嚴武ᄒᆞ야登此臺
而迎中使也ㅣ라○니건ᄢᅴ嚴僕射와다ᄆᆞᆺ
中使ᄅᆞᆯ望鄕臺예迎逢ᄒᆞ던이ᄅᆞᆯ正히ᄉᆞ랑
ᄒᆞ노라 主恩前後三持節軍令分明數擧盃 武ㅣ
兩鎭蜀ᄒᆞ고一刺綿州故로云三也ㅣ라數
擧盃ᄂᆞᆫ言軍政이明肅而府中이無事故로
有盃酒之樂이니라○님금恩惠로몬져와
後에세번鈇節을가지니軍中엣法令이分
明ᄒᆞ야不丕飮
盞을드더니라 西蜀地形天下險安危須仗

出群材 此ᄂᆞᆫ 言蜀地險而易危니 須得如武者ᄒᆞ야 鎭之라아 可以安也ㅣ라라

○西蜀ㅅ 地形이 天下애 險阻ᄒᆞ니 바ᄃᆞ라오ᄆᆞᆯ 便安히 홀뎬 모로매 ᄂᆞᄆᆡ게 特出ᄒᆞᆫ 材質을 倚仗ᄒᆞ야아 ᄒᆞ리라

軍旅 古詩二首 律詩七首

揚旗 甫ㅣ 自註 成都尹嚴武ㅣ 置酒公堂ᄒᆞ고 觀騎士ᄒᆞ야 試新旗幟ᄒᆞ니라

江雨颯長夏府中有餘清 ᄀᆞᄅᆞᇝ비 긴 녀르메 오ᄂᆞ니 府中에 ᄆᆞᆯᄀᆞ미 有餘ᄒᆞ도다

我公會賓客肅肅有異聲 嚴鄭公이 持軍

이嚴肅ᄒᆞ야有殊異聲名也ㅣ라○우리公이소ᄂᆞᆯ뫼홧ᄂᆞ니싁싁ᄒᆞ야特異ᄒᆞᆫ소리잇도다

初筵閱軍裝羅列照廣庭 처엄돗ᄭᆞ로매軍裝을보ᄂᆞ니버려너븐ᄠᅳᆯ헤비취엿도다

庭空六馬入駊騀揚旗旌 駊騀ᄂᆞᆫ音破我ㅣ니馬ㅣ搖頭也ㅣ라○ᄠᅳᆯ히뷘ᄃᆡ여슷ᄆᆞ리드러오니머리이어고旗旌을드ᄂᆞᆫ놋다

回回偃飛蓋熠熠迸流星 回回ᄂᆞᆫ勢ㅣ回旋也ㅣ라熠熠은色이鮮明也ㅣ라○횟도로횔훠ᄂᆞᆫ盖ㅣ기울오빗나ᄒᆞ르ᄂᆞᆫ벼리솟ᄂᆞᆫ듯ᄒᆞ도다

來纏風飆急去擘山嶽傾 此ᄂᆞᆫ言旌旗來去疾速之狀ᄒᆞ다○올젠ᄇᆞᄅᆞ미버므러ᄲᆞᄅᆞ고갈젠뫼흘헤텨기우려가ᄂᆞᆫ듯ᄒᆞ도다

材歸俯

身盡妙取略地平 須溪云前言俯身試搴旗라ᄒᆞ다○材質은몸구부믈다호매가ᄂᆞ니微妙호믄仰흘아아平히오믈取ᄒᆞ애로다 虹蜺就掌握舒卷隨人輕 虹蜺ᄂᆞᆫ喻旗也ㅣ라○므지게소내나아왯ᄂᆞ니뎌며가포미사ᄅᆞᆷ을조차가ᄇᆡ얍도다 三州隔犬戎但見西嶺青 時예吐蕃이隔松維保三州ᄒᆞ니라○세ᄀᆞ올히犬戎의게ᄢᅥ뎌시니오직西ㅅ녁뫼히파라ᄒᆞ믈보리로다 公來練猛士欲奪天邊城 公이와勇猛호士卒을訓練ᄒᆞ야하ᄂᆞᆳᄀᆞ잇城을앗고져ᄒᆞ놋다 此堂不易升庸蜀日已寧 不易升은言居其位ᄒᆞ얀當憂其事也ㅣ라○이堂앤올오미쉽디몯ᄒᆞ니庸파蜀

괘나날ᄒᆞ마 편안ᄒᆞ도다 吾徒且加餐休適蠻與荊 此ᄂᆞᆫ 言嚴

武ㅣ鎭蜀而無事ᄒᆞ야可以安居ㅣ니何必遠去ㅣ리오○우리무른ᄯᅩ바비나디먹고

이셔蠻과다ᄆᆞᆺ荊에 가디마롤디로다

冬狩行 時예梓州刺史章彝ㅣ兼侍御史ᄒᆞ야留後東川ᄒᆞ니라

君不見東川節度兵馬雄校獵亦似觀成功

校獵은校所獲之多少也ㅣ라田獵은所以訓鍊兵馬士卒之雄壯이니故로云觀成功

也ㅣ라○그듸ᄂᆞᆫ東川人節度使의兵馬ㅣ雄盛호믈보디아니ᄒᆞᄂᆞ다校獵호미ᄯᅩ일

운功을보ᄂᆞᆫ ᄃᆞᆺᄒᆞ도다 夜發猛士三千人淸晨合圍步

驟同禮예天子ㅣ不合圍니此ᄂᆞᆫ蓋譏之也ㅣ라步驟同은兵卒이練習也ㅣ라○바ᄆᆡ猛士三千人을發ᄒᆞ야새배닛도로ᄡᅳ리니步驟ᄒᆞ요미ᄒᆞᆫ가지로다禽獸已斃十七八殺聲落日回蒼穹禽獸ㅣᄒᆞ마열헤닐여듧비주그니주기ᄂᆞᆫ소리디ᄂᆞᆫᄒᆡ예하ᄂᆞᆯ흘두르혀ᄂᆞᆫᄃᆞᆺ도다幕前生致九青兕馲駝𡾊𡼖垂玄熊兕ᄂᆞᆫ野牛ㅣ라𡾊𡼖ᄂᆞᆫ高貌ㅣ라○帳幕ㅅ알픠아홉青兕를사로자바왯ᄂᆞ니馲駝의등어리예노피거믄고ᄆᆞᆯ드리웻도다東西南北百里間髣髴蹴踏寒山空髣髴은想見貌ㅣ라寒山空은言禽獸ㅣ蕩盡也ㅣ라○東西南北百里ㅅ이예블와치운뫼히뷔여슈믈스

치보ᄂᆞᆫ
ᄃᆞᆺ도다 有鳥名鸝鴒力不能高飛逐走蓬肉
味不足登鼎俎胡爲見羈虞羅中 言其肉味ㅣ 不足供祭祀
賓客而亦不免虞人之羅ᄒᆞ니譏盡物取之
也ㅣ라○엿ᄂᆞᆫ새일후미鸝鴒이니히미能
히노ᄅᆡᄂᆞ디몯ᄒᆞ고ᄃᆞᆮᄂᆞᆫ다보ᄎᆞᆯ조차ᄃᆞᆮᄂᆞ니
ᄂᆞ니고깃마시足히솟과도마애오ᄅᆞ디몯
ᄒᆞᆯ거시어늘엇뎨虞人의그믌
가온ᄃᆡ걸여이슈믈보ᄂᆞ니오 春蒐冬狩侯
得同使君五馬一馬驄 四時之狩ᄂᆞᆫ녜天子 事ㅣ니譏章犇의得
行也ㅣ라一馬驄은言兼侍御史也ㅣ라○
보ᄆᆡ蒐와겨ᅀᆞᆯ狩ᄅᆞᆯ諸侯ㅣ시러곰ᄒᆞᆫ가지
로ᄒᆞᄂᆞ니使君의다ᄉᆞᆺ
ᄆᆞ래ᄒᆞᆫᄆᆞᆯ騘이로다 況今攝行大將權號

令頗有前賢風 大將權은謂留後東川也ㅣ라○ᄒᆞ믈며이제大將의威權을攝行ᄒᆞᄂᆞ니號令이ᄌᆞ모ᄇᆡ어런사ᄅᆞ미風이잇도다

颾然時危一老翁十年厭見旌旗紅 颾然은猶飄轉也ㅣ라老翁은甫ㅣ라○時節이바ᄃᆞ라온제두루ᄃᆞᆫ니ᄂᆞᆫ호늘근한아비열ᄒᆡᄅᆞᆯ旌旗ㅅ비치블구믈아쳐러ᄒᆞᄂᆞ라

喜君士卒甚整肅爲我回轡擒西戎 그듸士卒의甚히整肅호ᄆᆞᆯ깃노니나ᄅᆞᆯ爲ᄒᆞ야ᄆᆞᆯ셕ᄉᆞᆯ두루혀西ㅅ되ᄅᆞᆯ자ᄇᆞ라

草中狐兔盡何益天子不在咸陽宮 時예吐蕃이入寇ㅣ어늘代宗이幸陝ᄒᆞ시니라○픐소갯여ᅀᆞ와톳기ᄂᆞᆫ다자보ᄆᆞᆯ므슴有益ᄒᆞ리오天子ㅣ이

제咸陽宮의朝廷雖無幽王禍得不哀痛塵

몬겨시니라

再蒙嗚呼得不哀痛塵再蒙言今에雖無幽王見殺之禍ㅣ나天子ㅣ蒙塵于外ᄒᆞ시니當奔救危亂也ㅣ니라○朝廷에비록幽王ㅅ禍亂이업스

나시러곰드트를다시니버겨사믈설워티아니ᄒᆞ야리아슬프다시러곰드트를다시

니버겨사믈설워티아니ᄒᆞ야리아

陪栢中丞觀宴將士二首

極樂三軍士誰知百戰場ᄀᆞ장즐겨ᄒᆞᄂᆞᆫ三軍ㅅ士卒이여뉘

온번사혼ᄯᅡᄒᆞᆯ다ᄂᆞᆫᄃᆞᆯ알리오無私齊綺饌久坐密金章私情

엽서ᄃᆞᄒᆞᆫ 차바ᄂᆞᆯ ᄒᆞᆫ 가지로 이반노니오
래 안자 金印 가진 사ᄅᆞ미 ᄎᆡᆨᄎᆡ기 잇도다 醉

客沾鸚鵡佳人指鳳凰 漢ㅅ黃祖ㅣ大會賓客而有獻鸚鵡者ㅣ어늘 請禰衡賦之ᄒᆞ니라 一云鸚鵡ᄂᆞᆫ 盃名이라 指鳳凰은 喩坐客之奇瑞ᄒᆞ다 ○ 술醉

ᄒᆞᆫ 소ᄂᆞᆫ 鸚鵡지우믈 沾被ᄒᆞ엿고 아ᄅᆞᆷ
다온 사ᄅᆞᄆᆞᆫ 鳳凰이라 마ᄅᆞ치ᄂᆞ다 幾時

來翠節特地引紅粧 어느제 翠節가지고오노마장 紅粧ᄒᆞᆫ 사ᄅᆞ믈 허왯도다

繡段裝簷額金花帖鼓腰 此ᄂᆞᆫ 言錦繡段으로 餙樂工之額ᄒᆞ고 金花로 爲樂器之餙이라 ○ 繡ᄒᆞᆫ 비다ᄂᆞᆫ로 簷額을 ᄭᆞ미고 金으로 ᄒᆞᆫ 고ᄌᆞ로 붑허리

예브텟도다

一夫先舞劍百戲後歌樵 ᄒᆞᆫ노미몬져갈가지고츔처늘온가짓노ᄅᆞᆺᄒᆞᆫ後에나모지ᄂᆞᆫ놀애블으ᄂᆞᆺ다

江樹城孤遠雲臺使寂寥 上句ᄂᆞᆫ言夔州ᄒᆞ고下句ᄂᆞᆫ言久無朝廷使命也ㅣ라○ᄀᆞᄅᆞ매나모ᄆᆞᆺᄂᆞᆫ城이외롭고머니雲臺옛使者ㅣ괴외ᄒᆞ도다

漢朝頻選將應拜霍嫖姚 此ᄂᆞᆫ假漢事ᄒᆞ야期望栢中丞也ㅣ라○漢朝ㅣᄌᆞ조將軍을ᄀᆞᆯᄒᆡ시ᄂᆞ니당당이霍嫖姚를ᄒᆡ이시리로다

觀兵

北庭送壯士貔虎數尤多 此ᄂᆞᆫ言鎭西北節度李嗣業之兵이

라○北庭이 壯士를 보내니 貔虎 ᄀᆞᆮᄒᆞᆫ 사ᄅᆞᄆᆡ 數ㅣ 더옥 하도다 精銳舊無

敵邊隅今若何 今若何ᄂᆞᆫ 望其必勝而憂之之辭ㅣ라○ᄂᆞᆯ나ᄆᆞᆫ 녜브터

對敵ᄒᆞ리 업스니 邊隅ᄂᆞᆫ 이제 엇더ᄒᆞ고 妖氛擁白馬元帥待彫

戈 白馬ᄂᆞᆫ 見沈兵馬詩註ᄒᆞ니 指寇盜ᄒᆞ니라 下句ᄂᆞᆫ 言待賜斧鉞而後에 徂征也ㅣ

라○妖恠ᄅᆞ왼 氣運이 힌 ᄆᆞᄅᆞᆯ ᄢᅳ렛ᄂᆞ니 元帥ᄂᆞᆫ 그림 그린 戈ᄅᆞᆯ 기들우놋다 莫守

鄴城下斬鯨遼海波 此ᄂᆞᆫ 言當以討吐蕃으로 爲急이니라○鄴城

ㅅ 아래ᄅᆞᆯ 守ᄒᆞ얫디 말오 遼海ㅅ 믌겨렛 고래ᄅᆞᆯ 버흘디어다

觀安西兵過赴關中待命二首

四鎮富精銳摧鋒皆絕倫 安西ㅣ統龜玆于闐焉耆疎勒四國故로謂之四鎮이니時에節度使李嗣業이隨郭子儀等ᄒᆞ야討慶緖ᄒᆞ니라○네鎮에이ᄂᆞᆫ나니하니敵鋒은摧陷ᄒᆞ요미다무례뻐혀나니라 還聞獻士卒足以靜風塵 또ᄅᆞ혀士卒을받ᄌᆞ오물듣ᄂᆞ니足히ᄡᅥ곰風塵을安靜ᄒᆞ리로다

老馬夜知道蒼鷹飢著人 齊桓公이伐孤竹而迷失道ㅣ어늘管仲曰老馬之智ㅣ可用이라ᄒᆞ고故老馬隨之ᄒᆞ니此ᄂᆞᆫ喩李嗣業ᄒᆞ고飢著人은喩祿位未高ᄒᆞ다○ᄂᆞᆯ근ᄆᆞ리바ᄆᆡ길흘아ᄂᆞ니ᄑᆞ른매주으려ᄂᆞᆫ사ᄅᆞᄆᆡ게븓ᄂᆞ니라 臨危經久戰用意始知神 言練熟戰陣ᄒᆞ야用意若神也ㅣ라○바

ᄃᆞ라오믈臨ᄒᆞ야오래사호믈디내니
ᄠᅳ들ᄡᅳ미비르서神奇호믈아ᄂᆞ다
奇兵不在衆萬馬救中原 兵有奇正ᄒᆞ니用奇兵은不在衆多也ㅣ어ᄂᆞᆯ今以萬馬로救之ᄒᆞ니言必勝也ㅣ라○奇兵은하매잇디아니커ᄂᆞᆯ萬馬로中原을救ᄒᆞᄂᆞ다
談笑無河北心肝奉至尊 河北은安史所在라言安西主將이談笑而蔑視北河也ㅣ라心肝은言至誠也ㅣ라○말ᄒᆞ며우음우어셔河北을입시너기고心肝으로至尊을奉戴ᄒᆞᄋᆞᆸᄂᆞ다
孤雲隨殺氣
飛鳥避轅門 避轅門은兵屯이嚴肅ᄒᆞ니飛鳥ㅣ畏不敢過也ㅣ라○외로왼구루미殺伐ㅅ氣運을좃고ᄂᆞᄂᆞᆫ새ᄂᆞᆫ轅門을에여가ᄂᆞ다
竟日留歡樂

城池未覺喧言留兵犒設ᄒᆞ니軍令이不譁也ㅣ라○나리 못ᄃᆞ록머므리셔즐겨ᄒᆞᄂᆞ니城池에ᄃᆞᆯ에요ᄆᆞᆯ아디몯ᄒᆞ리로다

八陣圖陣勢ㅣ八이니天地風雲飛龍翔鳥虎翼蛇蟠也ㅣ라亮이魚復縣平沙上애聚石為八行ᄒᆞ야作八陣圖ᄒᆞ니峽水ㅣ大時예大木松搓ㅣ隨波而去ᄒᆞ되陣圖之石은行列이依然尙存ᄒᆞ니라

功蓋三分國名成八陣圖三分은魏吳蜀이라○功은세헤ᄂᆞᆫ홧ᄂᆞᆫ나라해ᄃᆞ퍼잇고일후믄八陣ㅅ圖애이럿도다江流石不轉遺恨失呑吳石不轉은見題下註ᄒᆞ다吳蜀은脣齒之國이니晉之能滅蜀者ᄂᆞᆫ以蜀

이圖呉而不相輔也ㅣ니此ㅣ甫之所以爲恨也ㅣ라○ᄀᆞᄅᆞ미홀로뎌돌혼ᄋᆞᆷ디아니ᄒᆞ얏ᄂᆞ니기튼ᄉᆞᆯ호문呉ᄅᆞᆯᄉᆞᆷ교리라호믈그르ᄒᆞ니라

ㅣ夕烽

夕烽來不近每日報平安 每日初夜애放烟一炬를謂之平安火ㅣ라○나죗烽火ㅣ오믈갓가이셔아니ᄒᆞ야날마다平安을알외ᄂᆞ다 塞上傳光小雲邊落點殘 邊塞ㅅ우희傳ᄒᆞ야오ᄂᆞᆫ비치죠고마ᄒᆞ고구룸ᄀᆞ애디ᄂᆞᆫ點이殘微ᄒᆞ도다 照秦通警急過隴自艱難 秦에비취여警急호믈通ᄒᆞᄂᆞ니隴ᄋᆞ로디나艱難ᄒᆞᆫ디로브터오ᄂᆞ다 聞道蓬萊

殿千門立馬看니ᄅᆞ거늘드로니蓬萊殿에셔千門에ᄆᆞᄅᆞᆯ셰여셔보놋다

分類杜工部詩卷之五